

제주 돌문화공원의
입지 및 공간구성에 관한 풍수지리적 분석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환경설계학과
풍수지리전공

고 봉 선

지도교수. 박시익 · 박찬용

2010年 6月

감사의 말씀

어느 이듬해 풍수에 대한 흥미로움이 시작이었다.
굳이 고집하며 시작한 풍수가 참으로 힘들고 벅찼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늘 가슴 설렘임 그 자체였다.
그 설렘이 여기까지 이끌어 결국 논문이라는 틀을 얻게 되었고, 그 틀에 열심히 끼워
맞추고자 최선을 다하느라 단단해진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감사하기까지 제 자신을 추스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분들에게
더더한 감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깊은 통찰력으로 인도하여 주신 환경설계학과 학과장이신 박찬용 교수님,
풍수에 대한 저의 무지를 하나하나 되짚어주신 박시익 교수님, 풍수지리 후학지도에
열성을 다해주신 김기선 교수님, 조용조용 세심하고 아낌없이 가르쳐 주신 황영웅,
우한진 교수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논문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주도까지 급행열차로 보내주시고 아낌없이 격려해
주신 이성환, 박대홍 선배님, 고맙습니다.

첫 걸음도 떼기 전에 풍수지리에 대한 사고의 틀을 일깨워 주시고, 현장 답산과, 논문에
구성에서 결론에 이르기 까지 늘 함께 해 주신 제주 풍수지리학 회장이신 변창두 교수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신
제주관광대학 신영대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하늘을 보고, 때로는 땅을 칠때,
처음처럼 늘~~ 필요한 그 자리에 항상 있어준 박재락 선배님 고맙고 고맙습니다.
신나는 대학원생활과 열정을 갖게 해 주신 김동섭 선배님, 풍수인연으로
끈을 간직한 영남대학원 동기분들과, 선,후배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에 있기까지 학업에 전진 할 수 있도록 가장 큰 힘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든든한 지원자인 아들 태연,태우, 천상에서 가장 기뻐하실
어머니와 늘 함께 하신 하느님께 이 뜨거운 논문을 바칩니다.

2010년 6월 고 봉선 올림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풍수지리의 이론 고찰	5
1. 풍수지리의 의미와 음양오행(陰陽五行)	5
2. 삼신오제(三神五帝)	9
3. 풍수지리의 기(氣)	11
4. 동기감응(.同氣感應)	13
5. 용(龍),혈(穴),사(砂),수(水),향(向)	15
제3장 제주도의 풍수지리적 분석	33
1. 제주도의 지세와 역사	33
2. 제주도의 풍수적 개관	41
3. 제주시의 풍수적 고찰	52
4. 서귀포시 풍수적 고찰	58
제4장 제주 돌문화공원의 풍수지리적 분석	63
1. 돌문화공원의 개요 및 연혁	63
2. 돌문화공원의 코스별 배치분석	67
3. 돌문화공원의 입지에 대한 풍수적 분석	72
4. 돌문화공원의 공간구성에 대한 풍수적 분석	76

제5장 제주 돌문화공원의 풍수지리적 재 구성	87
1. 풍수지리적 입지의 재 구성	87
2. 배산 유형에 따른 풍수적 분석	90
1) 바농오름 공간구성의 배산	90
2) 작은지오름 공간구성의 배산	92
3) 큰지그리오름 공간구성의 배산	95
제6장 결론	99
참고문헌	103
국문초록	105
영문초록	108

그림 목 차

<그림2-1> 용의 면과 배	16
<그림2-2> 용의 변화	18
<그림2-3> 용의 5단계 변화과정	19
<그림2-4> 와혈도	21
<그림2-5> 겸혈도	22
<그림2-6> 유혈도	23
<그림2-7> 돌혈도	24
<그림2-8> 혈관의 구조	25
<그림2-9> 사신사의 바람에 기능	26
<그림2-10> 사신사의 반사	27
<그림2-11> 사신사의 명당	28
<그림2-12> 수구와 역수	30
<그림3-1> 제주의 지맥도	36
<그림3-2> 대동여지도의 용맥 흐름도	41
<그림4-1> 제주 돌문화 공원 조성사업 통합표	64
<그림4-2> 돌문화공원 위치도	64
<그림4-3> 제주 돌문화 공원 1코스 배치도	67
<그림4-4> 제주 돌문화 공원 2코스 배치도	69
<그림4-5> 제주 돌문화 공원3코스 배치도	71
<그림4-6> 제주 돌문화 공원의 내용분석도	72
<그림4-7> 간룡분석(모식도)	73

<그림4-8> 장풍분석	74
<그림4-9> 득수분석	75
<그림4-10> 돌박물관 배치도	77
<그림4-11> 전통초가 배치도	82
<그림5-1> 제주 돌문화 공원(1/25,000 지형도)	87
<그림5-2> 제주 돌문화 공원 지세분석	88
<그림5-3> 바농오름 모식도	90
<그림5-4> 작은지오름 모식도	93
<그림5-5> 큰지그리오름 모식도	96

표 목 차

<표 2-1> 오행의 배치와 상생상극	8
<표 2-2> 오행과 각각의 의미	10
<표 2-3> 청오경과 장경에서 표기된 기의 종류	12

사 진 목 차

<사진2-1> 자궁의 혈	25
<사진3-1> 제주도 위치	33
<사진3-2> 제주지형 용암동굴	34
<사진3-3> 제주시 지역	52
<사진3-4> 서귀포시 지역	59
<사진4-1> 돌문화공원 위치도	63
<사진4-2> 국민일보 2003년 11월5일 기사	65
<사진4-3> 북측방면에서 본 돌박물관	68
<사진4-4> 제주 돌문화공원 전경	68
<사진4-5> 돌문화 전관	70
<사진4-6> 돌문화 전경	77
<사진4-7> 비보 숲 설치 위치	78
<사진4-8> 제주 돌전시장	80
<사진4-9> 제주 돌전시장 건물의 배치 형태	80
<사진4-10> 세거리 집	82
<사진4-11> 두거리 집	84
<사진4-12> 야외공연장-1	85
<사진4-13> 야외공연장-2	85
<사진4-14> 바농오름 건물의 배치 형태	90
<사진4-15> 작은지오름 건물의 배치 형태	93
<사진4-16> 큰지그리 배산 건물의 배치 형태	96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 제주도의 유구한 역사와 동서남북으로 아름답게 뻗어 내린 용맥의 모습은 그야말로 신이 창조한 걸작품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러한 용맥의 모습에서 탐라의 고대 문화는 탄생되었으나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사실상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제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새로운 디딤돌을 놓으면서 ‘탐라문화의 재생’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으며 이에 따라 기록으로 살아진 탐라의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안 중의 하나가 현존하는 돌문화인 것이다. 돌문화는 우리 선인들이 생활 필수품으로 이용 및 사용하여 왔고 신앙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므로 선인들의 과거의 생활상을 파악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제주지역에 무한적으로 널려있는 이러한 돌문화를 수집하고 전시하여 이를 콘텐츠 화합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문화관광자원화 하려는 것이 당초 목적이었으며 이러한 목적에서 세계의 유일무일한 공원을 목표로 2006년 6월 1일 탄생된 것이 제주 돌문화공원인 것이다.

제주돌 문화공원은 2001년 9월 19일 기공식에 이어 2005년 12월 준공식이 행해졌으며 국비, 도비, 군비 등 총 300억의 예산으로 건립되었다. 제주돌 문화공원이 세워진 부지는 1989년 12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10년 동안

생활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곳으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려 박물관으로 건립한 것이다. 토목, 건축 평면도 작성 당시부터 제주의 창조신인 설문대 할망의 이미지를 형상화 하는 등 제주의 상징성을 최대한 반영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훌륭한 목적을 갖고 문을연 돌문화공원이 오늘날 40여명에 이르는 상주 인력으로 관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관람객의 방문이 극도로 저조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운영부실이 풍수지리와 어떤 상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흥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그 이유는 선인들은 바람과 물을 살펴 주거지를 정하였으며 주거지를 정하기 위하여서는 바람과 물에 영향을 주는 산세나 지형을 관찰할 수 밖에 없었다. 이를 관찰하는 작업이 풍수지리 이론이 탄생하는 근원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인류의 생활도구는 석기를 활용하여 후대에 여러 가지 생활도구를 만들고 신앙의 대상으로도 이용 되었으므로, 제주도에 무수히 존재하는 돌 문화는 풍수지리와 어떤 관계를 갖는다고 유추 할 수 있다고 본다. 풍수지리와 관계를 갖는다면 돌문화공원의 입지 및 공간구성은 풍수지리분석에 의한 재 구성을 함으로써 돌문화공원의 운영상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 돌문화공원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대해 우리의 전통지리사상인 풍수지리학을 토대로 적용 여부를 분석함으로써, 이번 연구조사가 제주도 문화관광개발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아가 이번 연구를 통한 돌 문화공원을 재조명하여 보다 나은 전통적인 제주문화관광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기를 바라는 데 그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제주 돌문화공원을 연구관찰 함에 있어서는 여러 방면에서 연구관찰 되어야 하나 본 연구관찰에 있어서는 우리의 전통적 풍수지리사상을 건물의 입지 및 공간구성에 따른 양택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제주 돌문화공원의 입지 선정의 목적과 공간구성에 있어서 우리의 풍수지리사상에형이상학 상관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돌문화 공원을 수차례 현장 답사 하였으며, 관련 문헌 자료를 통한 풍수지리이론으로 입지 및 공간구성을 분석고증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참고 문헌으로는 박시익 저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최창조 역 “청오경 · 금낭경”, “한국의 풍수사상”, 김기선 저 “풍수지리학 개론”, 섭구승 저 “산법전서”을 주요 참고 문헌으로 하였고, 또한 기타 관련 논문을 통한 고찰로 본 연구논문의 풍수지리적 분석 자료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2) 연구의 방법

풍수지리학에서 건물의 입지 및 공간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태조산을 거쳐 주산에 이르기까지 생룡으로 내룡맥 연결되는 것을 관찰하는 간룡법과, 주산에서 밀어주는 생기가 장풍법에 의한 사신사가 갖추어서 생기가 흩어지지 않는 곳을 선점하는 것과, 충만한 생기맥이 계수즉지에 의한 득수법에 따른 풍수적인 최상의 길지를 선택 분석함으로써, 명당터의 생기가 충만한 곳에 입지 및 공간구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첫째, 제주도의 산세와 지형,지물을 분석을 기초로 제주 돌문화공원의 입지 분석을 하고 둘째, 돌문화공원의 건물의 배치에 따른 풍수지리적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셋째, 지금의 돌문화공원의 입지 및 공간구성에 대한 풍수지리적 재구성을 위하여 입지선정과 내륙맥은 1/25,000, 1/5,000분의 제주도의 지형도를 참고 하여 분석하였고, 전체적인 국세 및 수세에 의한 분석 방법은 항공사진(다음출처)과 모식도를 참고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제1장의 서론에서 풍수지리의 이론을 고찰하고 제2장에서는 제주 돌문화공원과 관련된 풍수지리 이론을 분석하였으면, 제3장에서는 제주도의 풍수지리적 분석을 하였고, 제4장에서는 제주 돌문화공원의 공간구성 전시물에 대한 풍수지리적 고찰에 의한 분석을 통하여 자연과의 상관관계를 확인 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주 돌문화공원의 입지 및 공간구성에 대한 풍수지리적 재구성을 분석하여 탐라 문화의 재생과 제주도 문화관광개발에 풍수지리 이론을 적용할 가치가 밝힘으로써, 본 연구 논문의 결론을 요약하여 정리 하였다.

제 2 장 풍수(風水)지리의 이론 고찰

1. 풍수지리의 의미와 음양오행

1) 풍수지리의 의미

풍수지리란 말이 생긴 것은 고대부터이며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주거지라 볼 수 있으나 주거지를 설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람(風)과 물(水)이었다. 이를 관찰하는 작업이 곧 풍수를 보는 작업으로 인식되었고 자연을 삶에 접목시키는 풍수라는 말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¹⁾

공기와 물은 생명체의 주요한 기본 요소이며 풍수지리는 생명체를 이루는 바람과 물을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리조건을 해석하려는 데서 생겨났다.

풍수지리는 이 땅을 터전으로 살았던 한민족에 의하여 생겨나서 중국 등 동양 여러 나라에 전파 되었으며 ²⁾ 풍수지리가 한국에서 먼저 발생한 이유는 한국은 국토의 70% 이상이 크고 작은 산들로 분포대 있어 산신숭배 사상이 강하였고, 지모사상에 따른 이론과 결합하여 진보하였으며 결국 한국의 취락은 산세를 의지하여 형성되었다.

한편 풍수지리에 대한 정의는 ‘음양론과 오행설을 기반으로 주역의 체계를 주요한 논리 구조로 삼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지리과학으로 추길피흉을 목적으로 삼는 상지기술학’ 이라고 ³⁾ 말하거나 또는 풍수의

1)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5), p13

2) 박시익, 전제서

3)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2001) p32

‘풍(風)은 기의 흐름을 말하는 것으로 풍수지리학이란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자연친화적 학문으로 인간생존의 근본이 되는 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학문’ 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⁴⁾

그러나 풍수지리는 산세나 땅, 물, 바람 등의 자연현상을 분석하여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터득하여 인간에게 생기를 주도록 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 공간구조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된다.

2) 풍수지리의 전개

풍수지리의 사상적 배경은 역(易)사상과 음양오행을 기초로 통계에 의해 정리되었다. 오랜 인간의 경험 속에서 자연은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인간에게 영향을 끼쳐 왔는데 그 이치를 정리한 것이 풍수지리이며, 이러한 학문을 현대과학의 체계로 볼 때 경험과학 내지는 통계학이라고 할 수 있다. 풍수의 배경은 동양철학의 역(易)사상이라 할 수 있으며, 동양 철학에서 역(易)사상의 출발점은 우주만물이 모두 변화 한다는 것에 있다.

즉, 낮과 밤이 변하고 계절이 변하고, 기후가 변하고, 산천이 변하고, 인간이 변하여 우주만물이 모두 변한다는 자연 현상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자연현상이 그 자체에 일정한 규칙과 길흉이 존재함을 알게 된 것이다. 역(易)에서 우주만물의 변화는 기(氣)에 의한다는 것인데, 기에는

음기(陰氣)와 양기(陽氣)라는 상대 개념으로 구분 되어진다.

여기서 음(陰)과 양(陽)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개념으로 쓰인 것이다. 이러한 조화를 동양철학에서는 대대(待對)의 원리라 한다.

낮과밤(음,양), 남자와 여자, 겨울과 여름, 밝고 어두움은 서로 반대의 개념으로 성립되지만 남여가 연애와 결혼을 하듯 서로를 의지하며 필요로

4) 윤갑원, 「정통통맥지리」, (지선당. 2002) .p25

하기에 이를 대대(待對)관계라 하는 것이다. 결국, 자연이라는 대상을 관찰한 인류가 자연은 변한다는 현상에서 변화의 유동성을 체계적으로 분류, 분석해 나갔던 것이 동양에서의 역(易)이었으며, 여기서 사람들은 음양조화의 구조체를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다.

3)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이란 만물의 생장 소멸은 기(氣)의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음양오행의 모습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산세가 나감’ 양(陽)이고 ‘산세가 멈춤’은 음(陰)이며 산세가 머물면 음(陰) 즉 穴이 형성되고 산세(山勢)는 穴을 생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⁵⁾

음양오행(陰陽五行)사상의 음양설과 오행설은 초기에 각각 따로 발생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이론이 이론적으로 결합해서 만들어졌고 음양설이나 오행설의 핵심 개념은 기(氣)다. 기는 자연에 분산되어 있는 에너지를 말하고 분산된 기가 모이면 생명체를 이루고 생명체가 죽으면 다시 기로 분산된다.

오행은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를 말하는데 氣의 운행순서는 土金水木火이며⁶⁾ 금수목화 사기(四氣)가 사정(四正)의 기운이고 土는 사기(四氣)에 대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 土(己土)는 흩어진 기(氣)를 모아서 金을 생하고 金은 水를 생하고 水는 木을 생하며 木은 火를 생한다. 화는 생기를 방출하여 그 결과는 戊이다. 풍수지리에서는 여러 기가 결합해서 인간에게 유익한 기운을 만들면 吉한 것으로 나쁜 기운을 만들면 凶한 것으로 풀이한다. 吉

5) 음양에 대한 표현은 다양하나 음양을 명백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陰陽者 地理家之神髓 了得此二字 則觸目便通 無難事矣 蓋地理之道 不過陰中求陽 陽中覓陰而已(음양은 지리학자의 신수로 이 두 글자를 이해하면 정통하여 어려운 일이 없다. 대개 지리의 도는 음에서 양을 구하고 양에서 음을 구하는 것일 뿐이다. (섬구승,전게서) p29

6) 천간은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로 되어 있으나 氣의 운행순로는 己→庚→辛→壬→癸→甲→乙→丙→丁→戊이다.

한 기운을 풍수에서는 생기(生氣)라 하며 생기가 흐르는 땅은 산수가 조화롭고 음양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곳이라 하며 이를 명당(明堂)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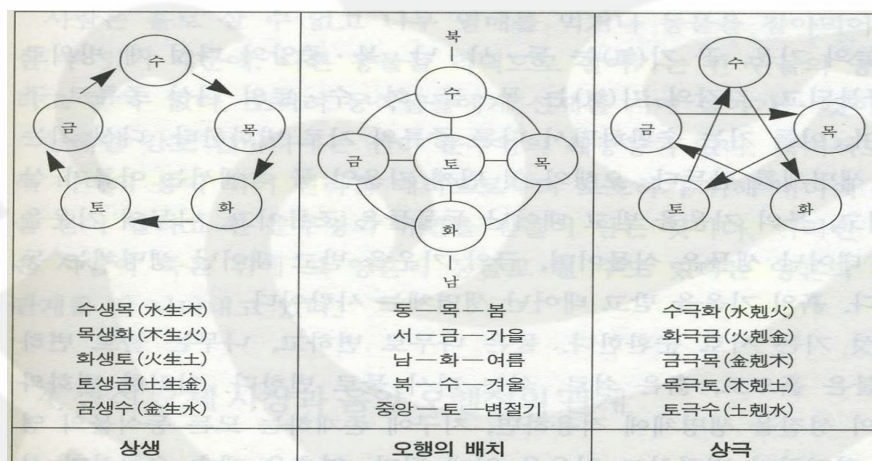
이러한 조화와 균형을 이룬 곳은 산, 수, 방위 등을 고려하여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인간이 선택할 수도 있으며 인간적인 노력에 의하여 자연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인간이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 수, 방위 기타 단서 들을 갖고서 생기를 파악하려는 모든 노력이 풍수지리 이론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오행이란 수·목·화·금·토의 다섯 가지 기운이다.

수(水)는 물처럼 아래로 내려가 생하는 기운이며 수에 해당하는 계절은 겨울이다. 목은 나무와 같이 수직 상승하는 기운을 말하며 목에 해당하는 계절은 봄이다. 화의 기운은 불꽃과 같이 기운이 사방팔방으로 확산되어 폭발하는 힘을 말하고 힘이 격렬하게 분출되는 것을 뜻하며 태양열 같은 성질이다.

현대 물리학에서 열에너지이다. 화에 해당하는 계절은 여름이다. 수축하려고 하는 힘을 금이라 하고 토는 수·화·목·금·토의 기운을 끌고루 갖고 있는 기운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작용을 한다.



<표2-1> 五行의 배치와 상생 · 상극

2. 삼신오제(三神五帝) 사상

하느님이 만물을 창조하는 작업은 삼신을 통해 이루어지며 삼신은 하느님을 대신해서 사람의 생사와 관련된 역할을 주도 한다.

삼신사상에는 유교에서 주장하는 현실 세계와 불교에서 주장하는 마음 곧 영혼의 세계와 신선사상에서 주장하는 인간과 영혼의 합일사상이 포함되어 있다.

유교 이론은 현실 세계에서 처신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인간의 영적세계나 내세에 대한 해석은 부족하다.

반면 불교 이론은 현실 곧 물질세계는 순간적으로 소멸되므로 무시하고 오직 마음의신 세계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한 신선사상이나 도교는 인간의 본질을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해석하는데 신선사상의 근원은 단군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단군사상에 의하면 사람의 영혼은 하늘에서 내려왔고 신선사상은 영혼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어 신인합일 사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삼신사상에는 유교 · 불교 · 신선 사상의 세 가지 종교이론이 모두 결합되어 있다. 삼신의 상징은 삼태극이며 삼태극 문양은 신라 시대에 왕가에서 사용하던 보검에도 새겨져 있으며 조선시대 왕릉 입구에 있는 홍살문에도 그려져 있다. 한국의 각종 고 건축물, 특히 연못 형태에는 대부분 삼신사상이 표현되어 있다.

경복궁, 경희루, 남원 광한루, 경주 안압지 등에 조성된 연못 내부에는 세계의 인공섬이 만들어져 있다. 이 숫자는 삼신을 뜻하며 이들 섬에는 봉래산, 방장산, 영주산이라고 하여 삼신산의 이름을 붙여 놓았다.

이는 신선사상과도 관련된다.

경회루는 경복궁 내부에서 가장 큰 건물 가운데 하나이다.

건물의 구성 기법을 보면 삼신사상이 잘 담겨져 있다.

연못 위에 섬을 세 개 만들고 그 섬 위에 높이 누(樓)를 올린 것은 삼신사상에서 비롯한 것이다.

섬 가운데 가장 큰 섬은 태일, 작은 섬 두 개는 천일과 지일을 뜻한다. 삼신사상이 나타난 또 하나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마니산 참성단을 들 수 있다. 참성단 성곽에는 세 곳에 개구부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는 바로 삼신이 출입하는 곳이다. 참성단은 4,500년 전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제는 하느님의 작용을 도와주는 다섯 신이다. 이 신들은 각각 다른 기능을 갖고 있으며 동서남북 중앙이라는 각각의 위치에 따라 떨어져 있고 고유한 색을 갖고 있어서 오색으로 상징되기도 한다.

동쪽에 푸른 옷을 입은 청제가 있고 남쪽에 붉은 옷을 입은 주제(적제)가 있으며 서쪽에 흰 옷을 입은 백제가 있다. 또한 북쪽에 검은 옷을 입은 흑제가 있으며 중앙에 황제가 있다.

오행	방위	수	계절	색	사신사
수(水)	북	1, 6	겨울	검은색	현무
화(火)	남	2, 7	여름	붉은색	주작
목(木)	동	3, 8	봄	푸른색	청룡
금(金)	서	4, 9	가을	흰색	백호
토(土)	중앙	5, 10	변절기	노란색	사람

<표2-2> 오행과 각각의 의미

인간이 선택할 수도 있으며 인간적인 노력에 의하여 자연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인간이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 수, 방위 기타 단서 들을 갖고서 생기를 파악하려는 모든 노력이 필요하다.

3. 풍수지리와 기(氣)

풍수에서의 기(氣)의 개념은 한마디로 정의되고 있지는 않으나, 우주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를 총칭하여 이르는 말이며 생명체, 무생물체, 등의 생(生), 장(長), 수(收), 장(臟)에 관하여 역동적인 기운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즉 만물의 생성(生成), 변화(變化), 소멸(消滅)을 기(氣)의 작용으로 파악한 것이며, 기(氣)라는 글자를 파자(跛者)해보면 기(气)는 하늘 즉 우주 공간을 뜻하고 그 속이 미(米)자는 사방팔방으로 퍼져가는 기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⁷⁾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는 만물이긴 하지만 비어 있는 우주 공간 역시 실상은 기로 채워져 있다는 뜻이다, 즉 기는 물질과 비물질, 생물과 무생물, 시간과 공간, 빛과 파장 등 여러 가지 유,무형의 존재로 우주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이며, 허공이 아니라는 것은 현대 물리학적 측면에서도 설명된 바 있다. 따라서 동양사상에서 기(氣)는 우주만물의 구성체와 모든 현상을 의미한다. 공기와 같이 비어 있고 보이지 않는 기운도 기(氣)다.

기(氣)의 특성 및 해석을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우주공간과 지구상의 기(氣)는 천(天), 지(地),의 영향으로 음양의 기(氣)와, 오행의 기(氣) 및 오운육기(五雲六氣)의 양태로 표출된다.

7) 이길환 역, 「기의 불가사의」 (동화문화사, 1993), p108

즉 모든 기운이 지구와 지구 밖의 태양을 포함한 우주의 두 기운 즉 음과 양의 기운을 받는다는 것이다.

㉠ 하나의 물체를 갖는 개별적인 동식물. 빗물질 마다 음기와 양기, 생기와 사기(邪氣) 내기와 외기 등 상대적이면서도 상생(上生), 상보(相補),해주는 기(氣)를 갖는다. 이는 지구와 땅인 음과 우주와 태양인 양의 기운을 받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생물과 현상이 음과 양의 두가지 기운을 동시에 함유한다는 의미이다.

㉡ 기(氣)는 서로 다른 유,무형의 기와 상생, 상보하거나 상충하려 한다. 이것이 태양이 낮에는 지구에 에너지를 복사하고 밤에는 지구에서 우주로 에너지를 복사하듯 상호 관계성을 동시에 가지며 일방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 시는 같은 성질끼리 유유상종(類類相從)하려하며

㉣ 기(氣)는 수축과 팽창을 하면서 일정한 방향과 통로를 따라 움직인다.

㉤ 기(氣)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그 강약이 변화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 기(氣)는 마음 가는데 따르고 기는 따르는데 마음이 따른다

㉦ 기(氣)의 형태가 변해도 기의 절대량은 언제나 같다.

청오경	장경
음양의 기(氣)	오기(五氣: 오행의 기)
길기(吉氣)	음양의 기(氣)
귀기(貴氣)	외기(外氣: 땅위의 기)
진기(眞氣)	내기(內氣: 땅속의 기)
가기(佳氣)	전기(全氣:상하좌우전후 육합의 기가 결집된 기)
외기(外氣)	길기(吉氣)
내기(內氣)	생기(生氣)
전기(全氣)	

<표2-3> 청오경과 장경에서 표기된 기(氣)의 종류

4. 동기감응(.同氣感應)

풍수지리에 동기감응(.同氣感應)론이 있다.

이것은 각각의 기(氣)는 주위의 기(氣)에 의하면 좋은 환경에서는 좋은 생산이 있게 되고 나쁜 환경에서는 나쁜 생산만이 있게 되는 당연한 이치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 볼 때에는 주위의 기(氣)나 같은 종류의 기(氣)가 차라리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환경의 중요성과 배경과의 어울림이 동기감응(.同氣感應)에서 말하고 있다.

동기감응(.同氣感應)을 그대로 해석하면 같은 성격의 기(氣)는 서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동기감응(.同氣感應)의 원리를 장경에서는 한 나라때 궁중에 있는 종(鐘)이 스스로 소리를 냈는데 이는 그 종을 만드는 재질이 있었던 동산(銅山)이 무너진 데서 연유한다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동으로 만든 종(鐘)이 같은 기운을 가진 동산(銅山)이 무너지면서 동기감응(.同氣感應)하여 스스로 울렸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현재 동기감응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⁸⁾

그러나 동기감응(.同氣感應)원리는 이론자체가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예는 같은 진동수를 가진 서로 다른 물체가 공진하는, 즉 공명현상과 같은 예를 보면 타당한 가설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동기감응원리가 풍수에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나치게 이점을 신봉하였다는 점이다.

8) 모종수, (기풍수연구, 1994.) p100

생전에 고인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의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무리 악인이라도 명당만 차지하면 그 후손이 발복한다는 모순된 논리를 적용해 온 것이며, 이 논리가 그 동안 음택풍수의 폐해로 나타났고, 풍수를 미신으로 보는 원인이 된 것이다.

또 기감의 교감전달 속도는 빛과 같아서 아무리 먼 거리에 있어도 또한 밀폐된 지하 공간에 있을지라도, 살아 있는 사람 사이에서는 텔레파시 통한다고 한다. 이러한 유사한⁹⁾ 실험이 있었으나 이 또한 명쾌한 동기감응(同氣感應)의 입증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통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역시 없다. 음택풍수가 성행했던 조선후기에도 이와 같이 맥락의 동기감응(同氣感應)이 있었다.

수맥으로 알려진 임응수 신부는 수맥이 흐르는 수많은 묘지를 이장하였는데 “상의 시체가 명당이라고 판정 받은 곳에 묻혔다면 자손이 잘 되고 부(部)를 누리고 가문이 빛나는 등 경사가 겹치지만, 좋지 않은 곳에 묻혔을 때에 도리어 후손에게 화를 입힌다고 하여 동기감응(同氣感應)원리를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로 볼때 동기감응(同氣感應)은 단순히 땅을 하나의 개체로 본 기계론적 이론에 불과하며, 풍수에서는 기본적으로 땅을 무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유기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관점에서 동기감응(同氣感應)론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9) KBS프로그램(미스터리 추적) 1997,10,20

KBS프로그램 (미스터리 추적)에서는 조상과 후손이 서로 감응되는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성인남자3명의 정맥과 양자공명장치(QRS)를 이용해 실험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 감응된다는 사실이 입증 되었다.양자공명장치는 모든 물체의 근본이 기에 있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장치인데, 사람의 흔적이나 기(氣)가 남아있는 물체로부터 미약한 자기를 특정해 질병 등을 진단하는 시스템이다. 정맥을 추출하여 건강 상태를 살피고 나서 건강한 3명의 정맥을 유리관에 떨어뜨려 놓은 후, 3명중 임의로 한명을 선택하여 전기적인 자극을 주었을 때, 멀리 떨어져 있는 정맥에도 그 자극이 전달되는 가를 관찰하는 것이다. 3명중 1명을 선택하여 직류12V의 전기 자극을 주고 멀리 떨어져 있는 양자공명장치시스템으로 분석한 결과, 모체 정맥의 전반적인 기능이 다른 2명의 정맥보다 훨씬 급격히 저하 되었다. 이 결과로 미루어보아 실험 대상자가 받은 정맥에도 그대로 전달된다고 볼 수 있다.

5. 용(龍),혈(穴),사(砂),수(水),향(向)

1) 용(龍)

풍수는 혈을 찾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며 혈을 찾기 위해서는 대체로 형세론인 용·혈·사·수의 4대 구분을 따른다.

이 네 가지 요인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간룡법(看龍法), 장풍법(藏風法), 득수법(得水法), 정혈법(定穴法), 좌향론(坐向論), 그리고 형국론(形局論), 비보론(裨補論), 보국(保局)등의 조건을 따져보게 된다.

(1) 내룡분석

풍수지리에서는 산을 용(龍)이라 표현하는데 태조산에서 출맥한 산맥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용처럼 생기가 있게 전, 후, 좌, 우(前後左右)로 기복운동을 하여 중조산, 소조산을 만들고 급기야 부모산과 태, 식, 잉, 육(혈)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산줄기를 살피는 것은 간룡, 맥룡, 심룡 등과 같은 의미이다.

주차가 산릉의장(山陵儀狀)에서 “무릇 땅을 고르려면 가장 먼저 반드시 그 주세(내룡)의 강약을 따져야 한다.” 라는 말은 이 간룡법을 말하는 것이다.

용 속에 감추어진 지기가 유행하는 맥이 있다고 믿는데, 간룡법에서는 용(龍)을 체(體)로, 맥(脈)을 용(用)으로 하여 그것을 찾는다. 따라서 용과 맥은 외면상으로는 한가지이나, 용을 살펴 맥의 선악을 알 수 있어도 맥을 보아서 용의 길흉을 알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용은 형체가 현저한 것이고 맥은 용의 속에 숨어있는 기운이 은미(隱微)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용이 있어야 맥이 있고, 맥이 없으면 시체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간룡(幹龍)은 용의 정맥(正脈)으로 나무의 큰 줄기와 같이 산의 큰 줄기되는 용을 말한다. 지룡(枝龍)에 상대되는 말로서 나무의 줄기(幹)와 가지(枝)에 빗

대어서 표현한 것이다. 주된 용맥이 모든 기운을 받아 산의 중심부를 뺀어 내려온 산을 말하기 때문이다.¹⁰⁾

내용 분석은 혈장까지 이어지는 산의 흐름을 분석하여 혈의 진가(眞假)와 크기, 역량(力量)등을 판단하는 방법이며 용을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2) 산의 면,배(面背) 구별

명당은 산의 앞면에만 있다. 이것은 사람의 생식기가 몸 앞에 있고, 꽃과 열매가 앞 앞면에서만 피고 맺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명당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산의 앞과 뒤를 구분해서 산의 앞면에서 찾아야 한다. 산의 앞면은 형태가 평탄하고 안정적이며, 지면에 밝은 기운이 서려있다. 그러나 산의 뒷면은 굴곡이 심하고 험한 바위가 불규칙하게 있으며, 지면이 어둡고 험한 분위기를 보인다.

산의 앞과 뒤는 남향이니 북향이니 하는 방위와 관계없이, 산맥의 흐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¹¹⁾



<그림2-1> 용의 면과 배

10) 김두규, 「풍수학사전」, (비봉출판사,2005) p17 요약정리

11) 박시익, 전개서, p69

(3) 산의 종류 구별

먼저 산이 갖고 있는 기운은 품격에 의해 주인격, 보조격, 배반격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주인격 산이란 한 지역에서 주인과 같이 비상한 능력을 갖고 있는산을 말하여 산의 형태가 안정되고 위엄이 있어 모양새가 피라미드와 같다. 중심이 안정되고 단아하며, 좌우 균형을 이루어 위엄을 갖추고 있다.

이런 산이 있는 지역은 명당이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강력한 지도자가 배출된다. 보조격 산은 중심 부분의 높이 낮고 넓이도 좁아서 기운이 중심에 모이지 않고 좌,우로 분산되는 형태의 산으로 큰 인물을 보조하는 인물이 주로 배출된다. 배반격 산은 주산을 향해 마주 보지 않고 주산에 등을 지고 있는 산을 말한다. 이러한 산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거나 부도가 나는 등 명예를 잃거나 재산 피해를 입게된다.¹²⁾

또한 산의 형태가 목(木)형, 화(火)형, 토(土)형, 금(金)형, 수(水)형 등의 오행산으로의 구별과 형국에 따른 구별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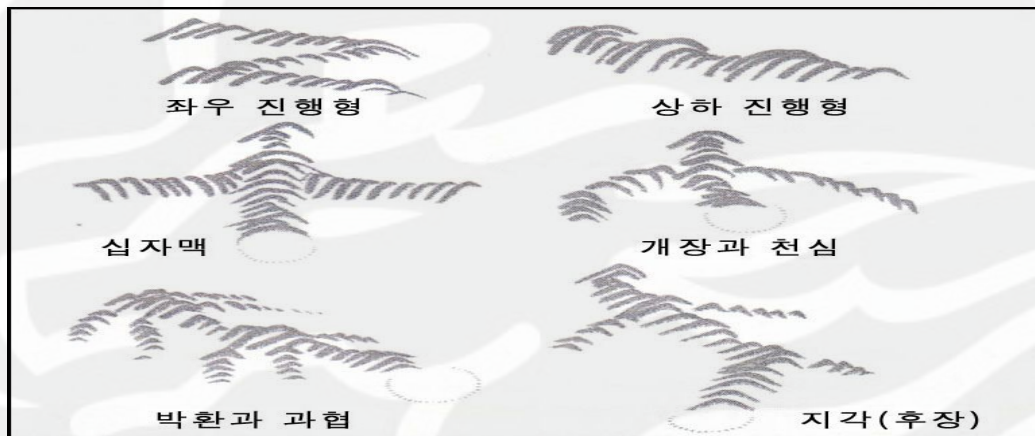
(4) 용의 변화 구별

태조산에서 출맥한 용이 혈장까지 행룡하는 동안 강한 기운을 털어내고 부드럽고 안정된 기운으로 변화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용의 변화라고 하며 이것은 마치 철광석이 고로에서 정련을 거쳐 백련철이 되는 과정과 같은 것이다. 개장이란 거대한 장막을 열 듯 용맥이 펼쳐 나가는 모양을 말하고 천심이란 용맥이 중심을 뚫고 혈장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말한다.

박환은 깎이어 바뀐다는 뜻으로 용이 모든 살기와 악기를 탈피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은 변화를 말하고 과협은 강한 기운이 통과하면서 마치 끈으로 묶인 것 같이 잘룩한 형태를 이루며 ‘속기’라고도 한다.

12) 박시익, 전계서, p71

과협처를 보면 혈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과협이 높으면 혈은 낮은데 있고 과협이 낮으면 혈은 높은데 있다. 과협이 길면 혈은 먼 곳에 있고 과협이 짧으면 혈은 가까운 곳에 있다. 과협이 왼쪽에 편재되어 있으면 혈도 왼쪽에 의지하고 과협이 오른쪽에 편재되어 있으면 혈도 오른쪽에 의지하고 있다.



<그림2-2> 용의 변화

과협이 흙으로 되어 있으면 혈도 흙으로, 과협이 돌로 되었으면 혈도 돌로 이루어진다.¹³⁾ 또 용은 산봉우리를 뒤로 하고 낮은 지역을 향해 내려가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마디에서 받쳐 주는 힘의 진동에 의해 앞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 때 뒤에서 받쳐 주는 용을 ‘지각(枝脚)’ 또는 ‘후장(後杖)’ 이라고 한다. 용의 힘은 지각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큰 지각을 갖고 있는 용은 약한 용이 된다. 지각은 청룡이나 백호가 되기도 하는데, 지각이 하나의 봉우리를 일으킨 뒤에는 주룡으로 변해서 혈을 이루기도 한다.

이상적인 생룡은 대략 15m마다 한절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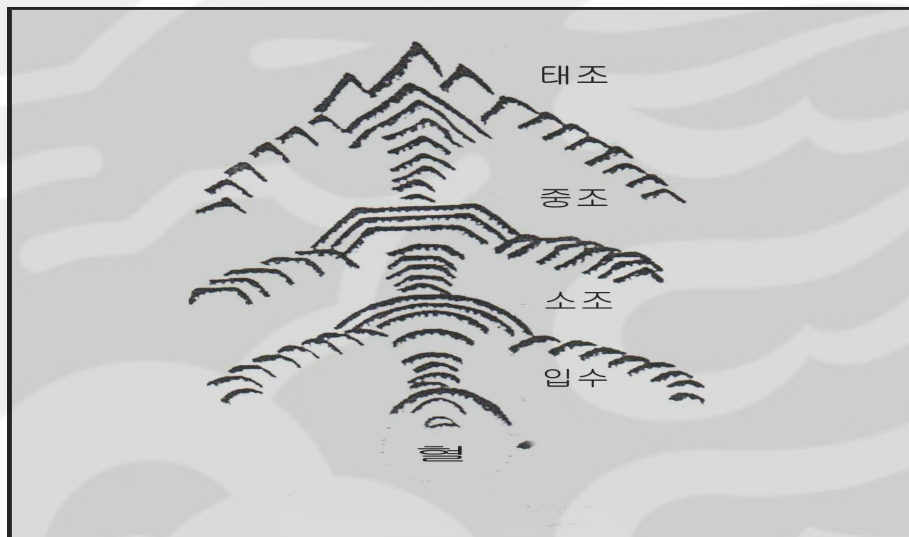
절의 수는 곧 발복 기간을 의미하며, 한절의 발복기간은 30년이다.¹⁴⁾

13) 김기선, 「풍수지리학개론」, (형설출판사 2005), p105

2) 혈(穴)

(1) 혈의 의의

명당 중에서도 기운이 특히 많이 모여 있는 곳을 穴이라 하며 혈은 명당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혈은 곧 생기를 만들어 내는 공간이다. 풍수지리의 궁극적 목적은 명당과 혈을 찾는 것인데 산에서 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뿌리에 해당하는 봉우리와 줄기에 해당하는 능선(용), 그리고 앞에 해당하는 청룡과 백호가 모두 잘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림2-3> 용의5단계 변화과정

(2) 혈의 성립조건

① 용진혈적(龍盡穴的)

용은 과룡에서는 결지할 수 없으며 용이 행룡을 다하고 멈춘 곳을 용진처(龍盡處)라 하고 용결된 것을 혈적(穴的)했다고 한다.

14) 박시익, 전게서, p116

② 양전하와 음전하의 결합

혈은 하늘의 양전하와 땅의 음전하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이것을 양래음수(陽來陰受)라 하며 이 양자가 결합하기 위하여는 산과 용, 득수가 있어야 하며 사신사가 갖추어져야 한다.

③ 태조 중조 소조 입수 혈판의 5단계를 거친다.

태조는 용의 발원지이고 중조는 태조에서 내려오는 중간의 작은 봉우리이고 소조는 중조에서 내려온 작은 봉우리이다. 입수는 소조에서 내려온 기운이 뭉쳐진 지점이고 혈판은 입수에 들어온 기운이 혈을 만드는 공간이다.

(3) 혈의 형태

① 와혈(窩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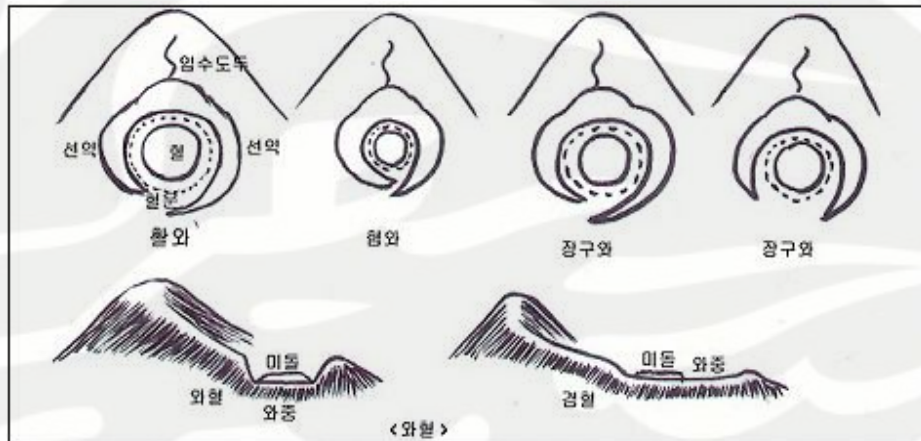
와혈은 닭 둥 우리나라 새집 혹은, 소쿠리 오목하게 들어간 형상으로,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린 모양이라 하여, 개구혈(開口穴)이라 하기도 하고, 손 바닥을 찌쳐놓은 모양과 같다하여 장심혈(掌心穴)이라 부르기도 한다.

입을 감춘 것 같이 오목하게 생긴 장구와(張口窩)가 있으며, 높은 산에서는 대부분 바람을 피하기 위하여 오목한 요처(凹處)에서 결혈되고, 낮은 곳에서는 대부분 횡룡(橫龍)에서 결혈된다. 주룡의 능선이 볼록한 음룡으로 입수하여, 오목한 양혈인 와혈을 결지한다.

와혈은 입수도두가 있고 양쪽 선익(蟬翼)이 팔을 뻗어 혈을 품안에 안는 듯한 형태이며, 혈은 품안에 오목 들어간 부분 중에서도 약간 돌출한 부분 즉, 와중미돌(窩中微突)한 부분에 있다. 와혈은 오목 들어간 부분의 깊고, 낮고, 넓고, 좁음에 따라 심와(深窩), 천와(淺窩), 활와(闊窩), 협와(狹

窩)로 나눈다.

와혈은 특히 선익이 좌우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전순이 없으면 비혈(非穴)이 된다.



<그림2-4> 와혈도

② 겸혈(鉗穴)

겸혈은 여자가 두 다리를 벌리고 뺨은 모양으로 개각혈(開脚穴)이라고도 하며, 혈은 음부(陰部)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 소양에 속하고, 말발굽이나 같은 형상으로 와혈에 비해 혈장이 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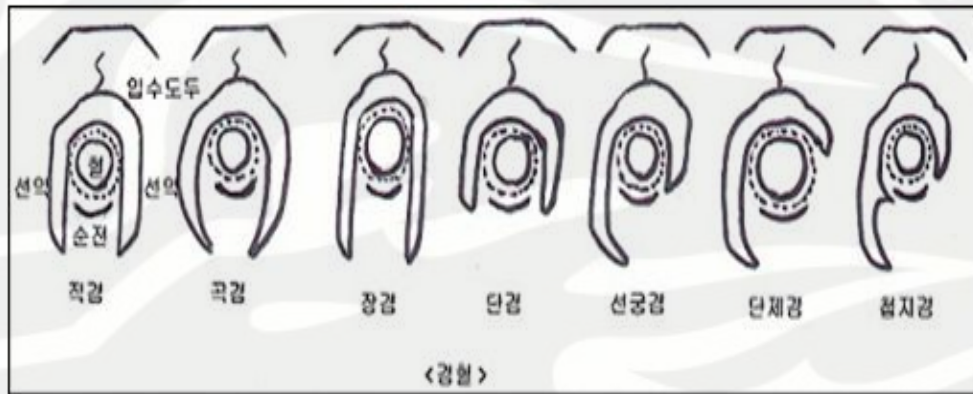
또한 소의 뿔과 같은 모양이라 하여 우각(牛角)이라고도 한다.

겸혈은 바람을 피하기에 유리한 형태로 평지나 고산(高山)을 가리지 않고 많이 있으며, 주로 산 능선이 만나는 함곡처(合谷處)에 겸혈이 된다.

주룡은 약간 볼록한 음룡으로 입수하여 오목하면서 혈장이 긴 양혈을 결지한다. 입수도두 양변에서 혈을 보호하기 위해서 뺨은 선익이 양쪽 다리가 되는데, 양 선익의 길이와 모양에 따라 양다리가 곧게 나간 직겸(直鉗), 양다리를 안으로 감싸주는 곡겸(曲鉗), 양다리가 길게 나간 장겸(長鉗), 양다리가

짧게 나간 단검(短鉞), 양다리가 쌍으로 갈라져나간 쌍검(雙鉞)이 있다.

검혈도 와혈과 같이 선익이 좌우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전순이 없으면 비혈이 된다.



<그림2-5> 검혈도

③ 유혈(乳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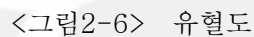
둥글고 풍만하게 늘어진 여자의 유방과도 같고, 나무에 과일이 달린 모양이라 하여 유두혈(乳頭穴)·현유혈(縣乳穴)·수유혈(垂乳穴)이라고도 한다.

주로 높고 낮은 산 능선을 따라 결혈이 되고, 내룡의 끝 하부에서 많이 결혈된다.

유혈은 평지나 높은 산 모두에 있으며, 약간 불룩하게 돌출되어 바람의 피해로부터 많이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혈 주변의 보호사(保護砂)가 조밀하게 감싸주고 있어야 한다.

주룡은 평평하고 낮은 양룡으로 입수해야 불룩한 음혈인 유혈을 결지한다. 유혈에는 선익의 형태에 따라 두 가지 격이 있는데, 선익이 두 팔을 벌려 혈을 껴안은 유회격(紐會格)과, 선익이 좌우로 벌렸으나 혈을 껴안지 못한 불유

이들 모두 두 팔을 뻗은 선익이 분명하고, 입수도두 뒤에서 분수(分水)가 분명하고, 혈 앞 순전(脣顛) 밑에서 합수가 분명해야 길격이다.



유혈은 약간 불룩하게 돌출 되어 바람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선택이
있어야 한다.

돌혈은 평평한 곳에서 돌기(突起)하여 가마솥을 얹어놓은 것이나 거북이 등과 같이 볼록한 모양으로, 유혈에 비해 혈장이 짧고 높아 태움에 속한다.

– 23 –

받기 쉬우므로 청룡과 백호를 비롯한 안산과 조산 등, 주변의 산들도 모두 높아 겹겹이 혈을 감싸주어서 장풍(藏風)이 잘되어야 하며, 혈판 주변에 단단한 토질이나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7> 돌혈도

평지에 돌기한 돌혈은 장풍이 사실상 어려워 바람을 많이 받으나, 평지의 바람은 퍼져 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고산의 골짜기 바람처럼 두려워 할 것은 못된다. 다만 평지 돌혈에서 중요한 것은 물의 영향이다.

입수도두 뒤에서 분수(分水)한 물이 다시 혈 앞 순전 밑에서 합수(合水)하여 물이 혈을 완전히 감싸주어야 길격이다. 그리고 혈이 돌기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안정감이 있어야 하며, 돌중에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혈이다. 돌혈 4격(四格)에는 혈상에 따라 솔이 큰 대돌(大突), 솔이 작은 소돌(小突), 솔이 쌍으로 된 쌍돌(雙突), 솔이 세 개로 된 삼돌(三突)이 있다. 돌혈은 불룩하게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입수·선익·전순이 분명해야 한다. 이 중 와혈과 겸혈은 우묵한 소쿠리와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어, 여성의 생식기에 비유되고, 유혈과 돌혈은 솟아올라 온 형태를 이루고 있어, 남성의 생식기에 비유된다.

(4) 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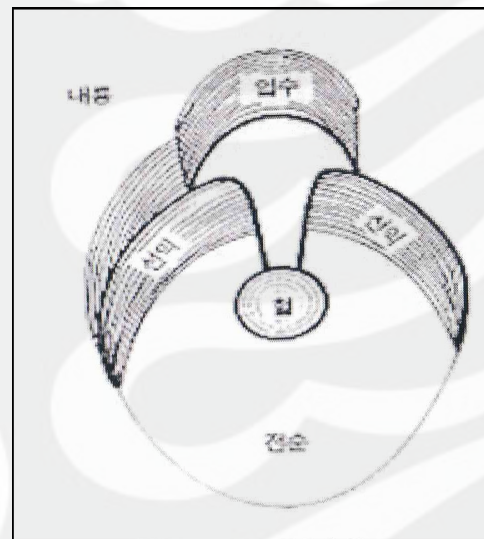
혈이 있는 장소로 용의 정제, 순화된 생기가 최종적으로 모여 융결(融結)된 곳으로 혈판은 입수도두 중심에 穴土, 하부에는 전순(氈脣),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는 선익(蟬翼)으로 구성되어 있다.

혈판은 혈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 당판이라고도 하며 한가운데 혈이 이루어지고 혈토가 있다. 혈판은 혈을 만드는 바탕이 되므로 혈판의 힘이 크면 혈의 기운도 크고 혈판의 힘이 약하면 혈의 힘도 약하다.

혈이 만들어지려면 먼저 혈판의 상부에 입수를 만들고 입수는 용에 흐르는 기운을 끌어 당겨 생기를 만들고 다시 그 기운으로 혈과 선익, 주작을 만들며 용의 기운이 입수의 기운을 좌우한다.



<사진2-1> 자궁의 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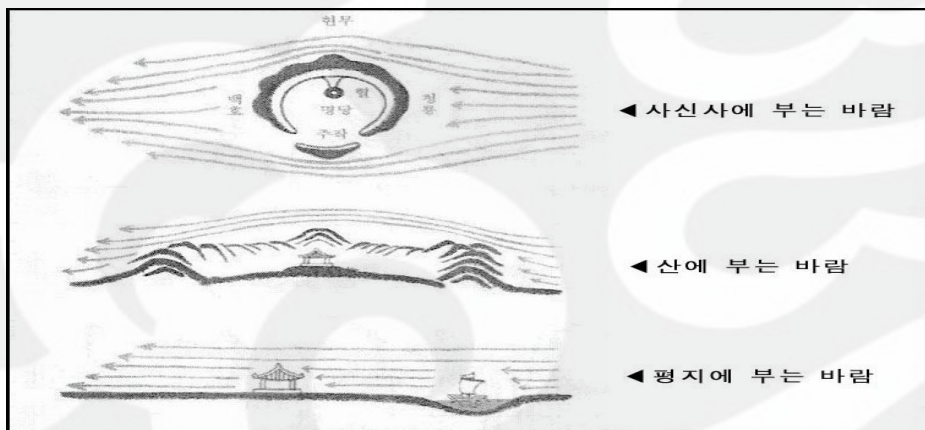
<그림2-8> 혈판의 구조

선익은 혈판의 혈을 중심으로 좌우에 있는 것을 말하고 전순은 입수 기운이 혈과 선익을 만든 뒤 남은 기운이 혈 아래로 평탄하게 모여 있는 공간을 말하며 혈의 기운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

3. 사(砂)

가장 전형적인 사(沙)는 혈장 주변의 사신사(四神砂), 곧 좌청룡(左靑龍), 우백호(右白虎), 전주작(前朱雀), 북현무(北玄武) 네 개의 산을 살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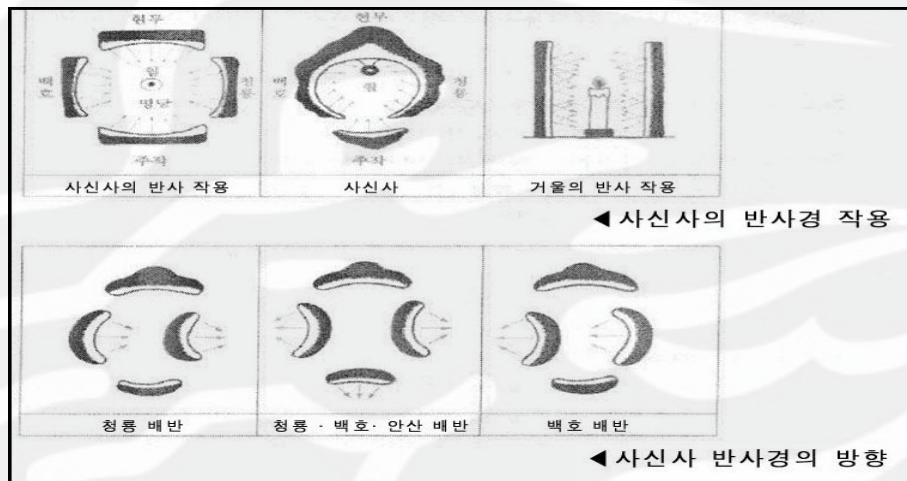
사신사의 기능은 주룡에 있는 혈에 생기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혈이나 명당은 사신사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러나 사신사가 있는 곳이 모두 혈이나 명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혈이나 명당에 생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신사가 바람막이의 기능을 하고 있어야 하며, 곡면 반사경의 기능, 볼록렌즈의 기능 등 세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신사가 바람막이 기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생기가 바람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강하게 부는 바람을 순하고 부드럽게 하려면 사신사가 사면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약하고 부드러운 바람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처럼 바람을 막고 생기를 만들고 흩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과정을 ‘장풍(藏風)’ 이라고 한다.



<그림2-9> 사신사의 바람막이 기능

청룡과 백호가 있다고 해서 모두 바람을 막아 주는 것은 아니다. 지세에 따라서는 오히려 바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생기를 분산시키기도 한다.

용호가 바람막이 기능을 하고 생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명당을 앞으로 해서 혈을 마주 보고 있어야 한다. 용호가 명당을 향해 감싸고 있지 않더라도, 명당 쪽을 향해 아름답게 마주 보고만 있어도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2-10>사신사의 반사

반면 용호가 명당 쪽에 등을 보이고 있는 경우에는 둥근 형태를 이루고 있어도 결코 바람막이 기능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한 바람을 일으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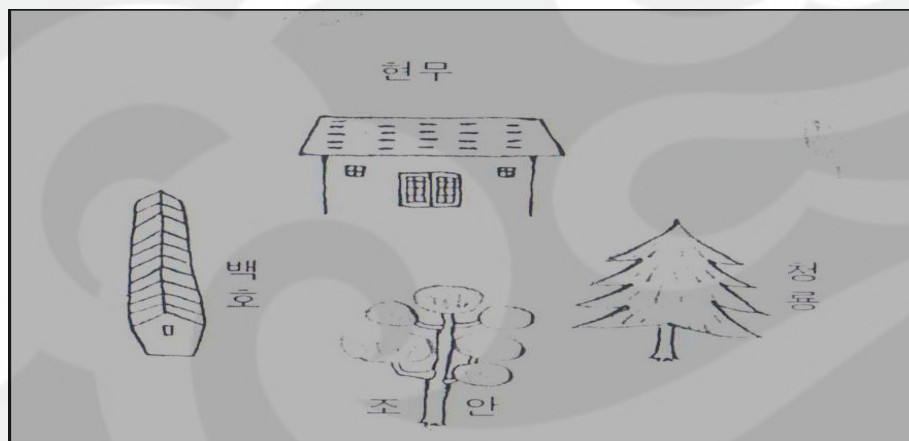
반사경이란 빛을 반사하는 거울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곡면 반사경은 반사경이 곡면을 이루고 있어 빛을 한 점에 집중적으로 모으는 장점이 있다.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대표적인 곡면 반사경이다.

산 · 나무 · 강을 포함해서 모든 물체는 자신만의 빛을 가지고 햇빛이나 달빛을 반사한다. 태양과 달이 청룡과 백호를 비추면 그 빛의 일부는 반사된다. 이 때 반사된 빛이 한 지점에 모여 하나의 초점을 이루면 그 곳에 신비한 기운, 곧 생기가 발생된다. 바로 이부분을 혈이라 하고, 혈 주변을 명

당이라고 한다. 여러 종류의 빛이 모이는 공간은 그 빛으로 인해 이름 그대로 명당을 이룬다. 따라서 청룡과 백호가 반사경의 기능을 완전하게 해야 생기가 많아져 명당을 이룰 수 있다.

볼록렌즈는 흩어져 있는 빛을 한 점으로 모아 매우 밝고 뜨겁게 한다.

사신사의 이상적인 형태는 혈을 중심으로 둥글게 감싸고 있는 모양이다. 이 둥근 형태의 청룡 능선은 볼록 렌즈의 둥근 부분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볼록 렌즈 형태의 청룡이 주변에 흩어져 있는 기운을 모아 하나의 초점을 만든다. 이처럼 청룡은 혈의 왼쪽에서, 백호는 혈의 오른쪽에서, 주작은 혈의 앞에서, 그리고 현무는 혈의 뒤에서 각각 볼록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면, 이 네 렌즈의 공통 초점이 되는 곳이 바로 혈이 되어 여기에 엄청난 양의 생기가 모이는 것이다.¹⁵⁾



<그림2-11> 사신사 명당

15) 박시익, 전계서, p140

4. 수(水)

풍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물(水)이다. 혈이 결지되기 위해서는 용을 따라 흘러가는 기가 물을 만나 멈추어야 하는데, 【장서】에서는 “기가 물을 만나면 멈춘다”라고 표현 하였으며, 풍수의 법술에서 물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정도였다.

풍수지리에서는 물의 기본적 형세를 득수(得水)와 취수(聚水)와 거수(去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용, 혈이 물을 얻는 것이 득수이고, 득수한 물이 혈앞 명당에 모여 혈과 음양교합을 하는 것이 취수이고, 그 물을 보국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거수다. 이 세 가지 물의 작용과 방법이 원만해야 진혈의 결지는 물론 부귀왕정(富貴旺丁)을 기할 수 있다.

득수의 중요성을 택리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들판에서 수구가 굳게 닫힌 곳을 찾기 어려우면, 반드시 거슬러 흘러드는 물이 있어야 한다. 높은 산이나 그늘진 언덕이나, 역으로 흘러드는 물이 힘있게 판국을 가로 막았으면 좋은 곳이다.

하수사가 한 겹 있어도 참으로 좋지만 세겹, 다섯겹이면 더욱 좋다.

이런 곳이라야 완전하게 오래 세대를 이어나갈 터가 된다“』¹⁶⁾라고 하여 수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구란 마을에 들어온 물줄기가 빠져나가는 끝지점을 말한다.

마을로 들어오는 물줄기를 득수(得水)라 하고 빠져나가는 물줄기를 파구(破口)라 하는데, 파구 지점을 수구(水口)라 하며 이를 가장 중요시 하는데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의미하기도 하려니와 지인상관설(地人相關說)로도 살펴볼 수 있다. 인체에 있어서 입은 득수, 항문은 수구에 해당된다.

16) 이중환, 이익성 옮김, 「택리지」, (을유문화사, 2006) p136

	좁은 수구 넓은 수구
수구의 종류	◀ 한강 주변의 역사와 명당

또한 역수(逆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역수란 혈 앞에 흘러가는 물이 앞에서 산이 가로 막으면 일직선으로 곧게 흘러가지 못하고 혈을 감싸 돌아 흐르게 되고 수구에서 청룡, 백호 가운데 하나와 만나게 되는데 서로 방향이 반대로 이루어 저 교쇄되어 지지가 빠져나가지 않게 되어 길지가 된다.¹⁹⁾

19) 김두규, 전계서, p335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강은 한강이고 한강을 역수하는 물은 청계천인데 청계천이야 말로 경복궁 명당을 더욱 명당답게 하는 역수이다.

최근 이루어진 청계천 복원공사는 우리나라의 대표 명당인 서울, 서울 중에서도 경복궁, 청와대 명당이 제 기능 할 수 있도록 지기를 보존해 주는 역할을 하리라 기대해 본다.

5 좌향(坐向)

향론의 목적은 좌향을 측정하여 그 좌향에 속하는 기(氣)가 무엇인가를 살펴봄으로써 그 땅의 성격과 길흉화복을 측정함에 있다. 더 나아가 길흉화복을 측정함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좋은 기(氣)를 얻기 위하여 좌향을 조정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된다.

초기 풍수 고전에서는 좌향론이 용, 혈, 사, 수에 비해 그리 중요하지 않다가 송(宋)대 이후에, 특히 이기론 풍수에서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나경(패철)론의 패철과 더불어 좌향론 역시 복잡하게 술수와 되어, 마침내는 풍수가 사술로 비난받게 된 지경에 이르고 만다.

이기론에 의한 좌향론은 수법과 결부되어 복잡해지는데, 고증된 역사적 기록 양택십서(陽宅十書)에 의하면 양공구성법, 음양산수법, 사로수법 등이 언급되고(지리신법)의 포태법이외에 고증된 불가능한 (지리오결)의 포태수법이나 팔십팔향법, 그리고 이 복잡한 좌향론들을 단순화 시킨 삼합법(三合法) 등 모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반면 형세론에서는 비교적 심리적으로 미학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갖추고자하는 소박한 관점이나 보편성을 갖는 좌향론을 내세우는데, 지역과 시대 혹은 형세론의 하부 유파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그러나 모두가 보편적으로 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①용(龍)을 의지하여 좌향을 정하는 방법

능선의 마지막 부분이 멈출 때 어느 방향에서 흘러와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를 보고 좌향을 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인다.

②안대(案對)위주 정하는 방법

무덤이나 건물 앞에 보이는 안산이나 조산의 아름다운 봉우리와 방향을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내룡(來龍)이 불분명할 때 주로 활용한다.

③귀산이나 낙산의 방향을 기준

산능선(來龍)이 흘러 가다가 90도 꺾어지면서 혈이 맺히는 경우, 이를 풍수용어로는 횡룡결혈(橫龍結穴)이라 부른다. 이 때 혈 뒤의 공허한 부분을 비보 혹은 지탱해주는 귀산(鬼山)이나 낙산(落山)과 무덤을 일치시켜 좌향을 정하는 방법이다.

④물의 흐름을 보고 좌향을 정하는 방법

물길이 어디에서 흘러나와 어디로 빠져 나가느냐를 보고 좌향을 정하는 방법으로 주로 이기론 풍수에서 많이 활용한다²⁰⁾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활용되어지는 이기론의 양택풍수 좌향법은 전통적인 동서사택법(東西舍宅法)과 최근 대만에서 수입된 삼원구운 현공풍수법(三元九運玄空風水法)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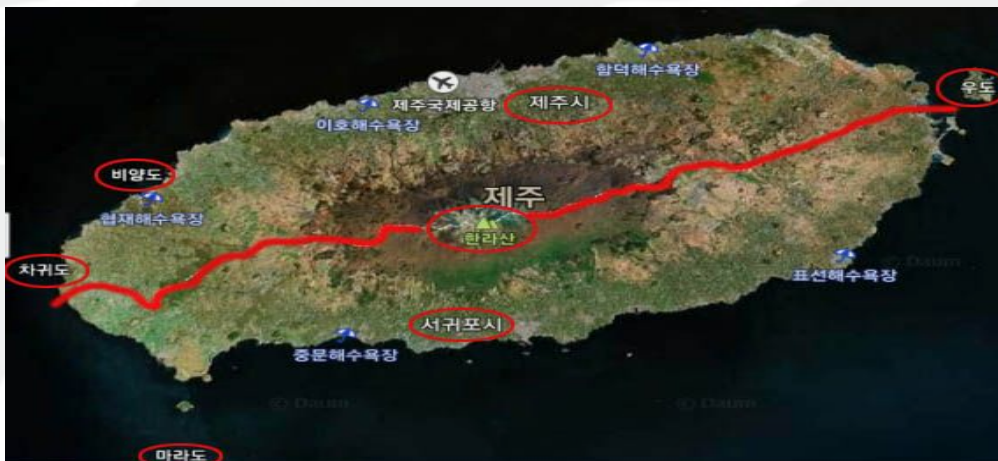
20) 김두규, 전개서. p463 요약정리 및 첨가

제 3 장 제주도의 풍수지리적 분석

1. 제주도의 지세와 역사

1) 위치

제주도는 한반도의 서남쪽 바다에 위치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 사이의 바닷길 한 가운데에 놓여 있으며 제주도의 면적은 1,845.60km²로서 남한 면적의 약 2%가 되고 제주도 본섬을 중심으로 우도, 하추자도, 상추자도, 가파도, 횡간도, 비양도, 마라도, 범섬, 새섬 등이 있다.



<사진3-1> 제주도 위치²¹⁾

제주도는 신생대 제3기말 플라이오세부터 제4기 플라이스토세에 걸쳐 활동한 화산 분출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제주도의 수계, 산계 및 해안 지형은 제주도를 형성한 화산의 활동 시기 및 활동양상과 관련되어 다양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21) 제주도 관광지도(다음출처)

제주도의 평면은 장축이 N70°E인 타원형이며 이는 한반도의 남해안선

및 소백산, 덕유산, 마이산, 계룡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와 나란히 하고 한반도 자체 구조 방향 중 하나인 요동반도와 일치한다.

섬의 중앙부에 있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 사면은 경사가 매우 완만하며 남-북 사면의 경사는 이 보다 약간 급하여 전체적으로 순상화산체로서 정상부에는 조면암 도음이 형성된 아스피데형(Aspide)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진3-2> 제주지형 용암동굴²²⁾

2) 수계(水系)와 산계(山系)

①수계

제주도의 수계는 한라산을 정점으로 방사상 수계를 이룬다.

남-북 사면은 동-서 사면에 비하여 경사가 급하고 동-서 사면에는 긴 사면과 넓은 용암대지가 발달하여 수계의 발달이 빈약하고 대부분의 하천들은 남-북 사면에 발달하여 남류 또는 북류하고 있다.

상류에서 유출하던 물은 용암류 경계에 발달하는 특수 층이나 하상의 주

22) 제주 돌문화 공원 홈페이지

상절리 등 과 같은 지질조건에 따라 복류하며 복류한 유수는 해안 부근에서 다시 용출하여 폭포를 이루기도 하지만 대부분 하천은 건천을 이루고 있다. 1/25,000 지형도상 남류 하는 하천은 22개이며 북류하는 하천은 18개로 총 40개로 이루어지고 있다.

② 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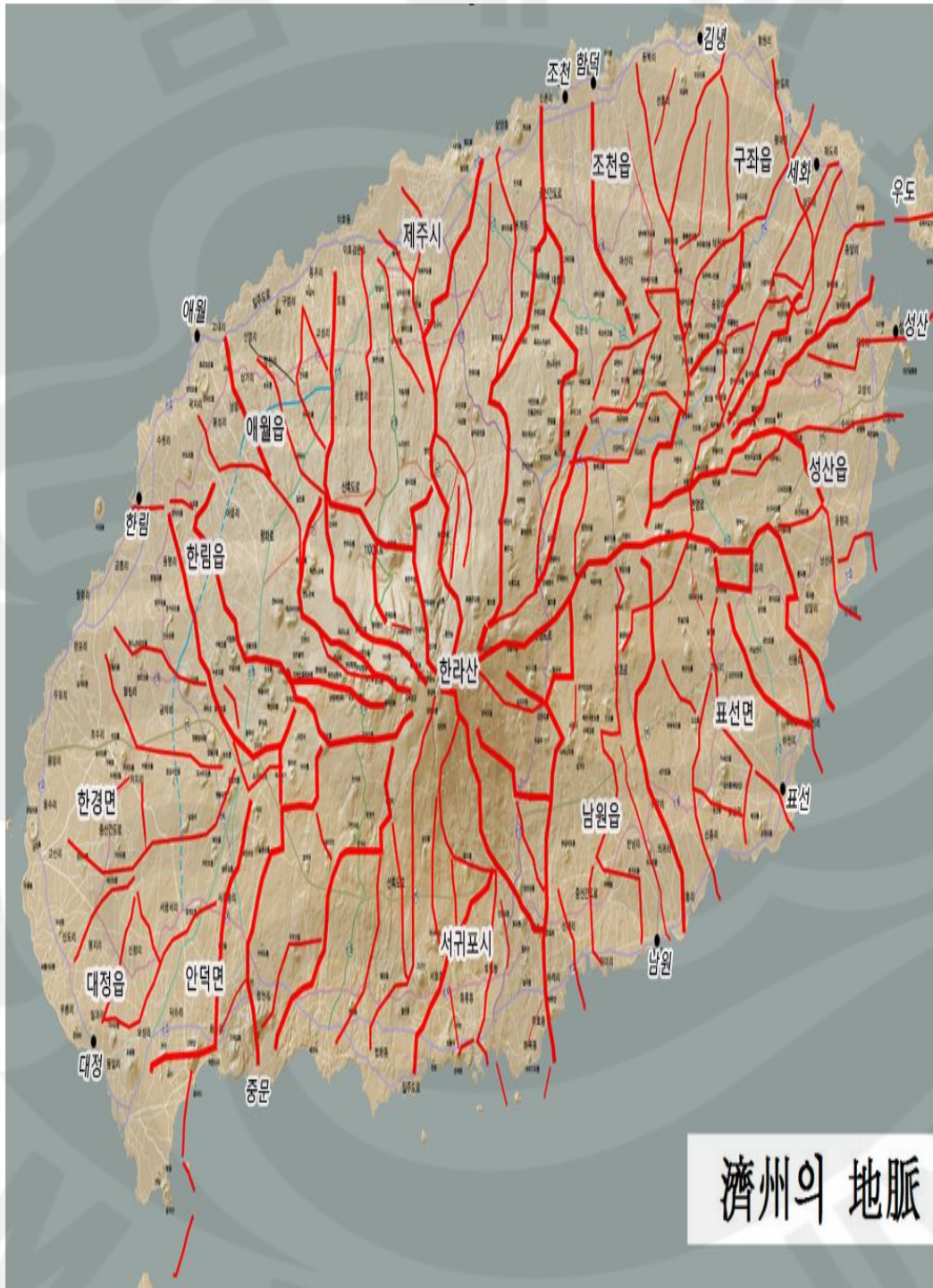
제주도의 산지는 고도 변화와 경사도를 기준으로 해안 저지대, 산악지대, 고산지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고 200m 이하인 해안저지대는 경사도가 4°이하이며 섬의 가장 자리에서 매우 완만한 경사의 평지를 이루고 있다. 표고 200~600m는 중산간 지대이며 600~1,200m 는 경사도가 10~20°로 다소 급한 사면을 이루는 산악지대가 있다.

표고 1,200m 이상에서 정상부근 까지는 경사도가 20도 이상의 급사면을 이루는 고산지대이다. 제주도의 전체적인 지형을 화산 지형 면에서 보면 해발고도 500m 까지는 완만한 순상화산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500~1,800m에서 경사가 비교적 급한 화산지형을 이루고 1,800m에서 정상까지는 종상화산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한라산은 순상화산체 위에 형성된 단성화산군을 이루고 있다.

제주도에 분포하는 단성화산은 368개로 말굽형 174개, 원추형 102개, 원형 53개, 복합형 39개 등의 형태로 분류된다.

섬의 중앙부에 있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사면은 경사가 매우 완만하며 남-북 사면의 경사는 이 보다 약간 급하며 남서-북동방향의 산줄기가 S 자 형을 이루고 있다.



<그림3-1>제주의 지맥도²³⁾

③ 해안지형

제주도의 해안은 총길이가 306.3km로 전체적으로 단조로우며 대부분은 화산암이 노출된 암석 해안이다.

제주도 해안선의 특징은 해수면하의 기반암 위에 기저부가 형성될 때는 아직 섬의 형태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 분명한 해안선을 추정하기가 어려웠다. 그 후 화산활동이 계속되어 해수면 위에 용암대지가 형성되면서 섬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해안선의 길이는 점점 길어졌다.

3) 제주도 산세와 수의 흐름

제주도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신생대 제3기말 플라이오세부터 제4기 플라이스토세에 걸쳐 활동한 화산 분출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제주도의 수계, 산계 및 해안 지형은 제주도를 형성한 화산의 활동시기 및 활동양상과 관련되어 다양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해수면하의 기반암 위에 기저부가 형성되고 그 위에 화산 활동이 계속되어 해수면 위에 용암대지가 형성되었으며 다시 368개의 단성화산을 이루었다.

이 368개의 단성화산은 한라산을 정점으로 하여 선상배열 양상을 보이고 동서남북으로 산세가 진행되면서 수 많은 혈 자리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산세의 흐름을 제주도 북부, 남부, 동부, 서부의 네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니 이러한 산줄기를 幹龍(간룡)이라 부르며 이 산줄기는 다시 분맥(分脈)하여 행룡(行龍)하면서 무수한 혈을 만들어 제주도내 마을을 형성하게 된다.

4) 제주도의 역사

① 선사시대

제주도에 사람이 거주하게 된 것이 언제 부터인지는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최근 고고학계의 조사 발굴로 선사시대의 고인돌, 혈거지, 조개무지, 석기, 토기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그 실체가 들어나고 있으며 1973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빌레못굴 조사에서 갈색 곰 뼈 화석이 보고되었는데 이 화석의 존재 때문에 제주도가 본래 대륙과 연결되었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후 1988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대한 표층조상에서 돌움 무늬토기의 큰 사발조각 1기가 발견되어 1994년에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돌움 무늬토기는 우리나라의 경우 양양 오산리 유적의 맨 아래층 위에서 출토된바 있지만 고산리에서와 같이 많은 석기와 함께 출토된 일은 없었다.

그러므로 제주도는 이대 이미 상당한 수준의 문화를 지닌 사람들이 거주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연대는 한국 최고의 신석기 시작 이전인 기원전 8,000년에서 구석기가 끝나는 무렵인 기원전 1만 2천년 사이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⁴⁾

따라서 제주도 신석기문화는 12,000년 전경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섬으로 된 이후 한반도나 남부지방과의 교류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의 독립된 문화권을 형성하여 나갔다고 볼 수 있다.

24) 한국최고의 신석기 유적은 강원도 양양 오산리 신석기 유적이다.

② 탐라국 형성기

탐라국 초기에는 주거 양상에서 상모리 삼단계의²⁵⁾ 장방형 또는 방형계 주거형태와는 다른 원형계의 송국리형 주거지가 출현하며 상모리, 김녕리, 용담동 등이 소규모 취락 단계에서 대규모 취락 단계로 형성되어 지고 묘제는 지석묘가 집중적으로 축조되며 사회구조에 있어서도 옥환과 동검, 동축 등 권위를 상징하는 유물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탐라(耽羅) 후기에는 문헌 기록에 탐라(耽羅) 등의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시기로 신라와 관계를 정립하고 일본과 당에도 사신을 파견하게 되며 말기인 10~12세기에는 고려초기의 녹청자와 해무리급 초기청자, 역도자 등이 확인되며 이들 유물의 분포권은 14세기 문헌에 등장하는 대촌현(大村縣)을 비롯 한 제주(濟州) 17 현(縣) 과 연결된다.

탐라국(耽羅國)은 신라, 백제 고구려와 통교하면서 번영 하였으나 서기 498년에 백제에 굴복하였으며 백제 멸망 후 662년(신라 문무왕 2년)에 신라에 항복하였다.

다시 고려가 삼국을 통일 한 후 탐라 국주 고자견(高自堅)이 938년(태조 21년) 12월 태자 고말노(高末老)를 입조 시키자 고려 태조는 종래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고자견(高自堅)을 성주(星主)로 하고 양구미(梁具美)를 왕자(王子)로 삼게 되며 서기 1105년 숙종(肅宗10년)에 탁라(毛羅)를 탐라군(耽羅郡)으로 고치고 직접 관원을 파견하여 민정을 맡게 하였다.

이때부터 현령과 현위가 와서 제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 관리들은

어진 관리도 있었으나 상당수는 백성을 괴롭혔으므로 반항과 소요의 근원이 되었다.

25) 기원전 3세기 이전의 것이다.

서기 1273년 진도에서 들어온 김통정(金通精)의 대몽항쟁이 실패한 이후
제주는 1374년 국권을 회복할 때까지 102 년 동안 몽고의 지배를 받게 되
었다.

서기 1295년 충렬왕(忠烈王 21년) 탐라를 제주(濟州)로 개칭하고 1300년
충렬왕(忠烈王26년)에 제주도를 동도와 서도로 나누었으며 대촌현(大村縣)
을 중심으로 하여 현을 설치 하였는데 귀일, 고내, 애월, 광지, 귀덕, 명월,
신촌, 함덕, 김녕, 호춘, 홍로, 예래, 산방, 차귀 등이며 그 이후에 토산, 정
의를 추가하니 본 읍을 포함하여 17현이 되었다.

서기 1392년 7월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자 적극적인
내지화 정책(內地化 政策)을 추진하였으며 1394년에는 제주에 향교를 설
치하고 관현의 권한을 강화시키게 되었다.

1404년(태종4년) 5월에 성주(星主)와 왕자제(王子制)를 폐지하고 성주는
좌도지관으로 왕자는 우도지관으로 고쳤으며 1445년(태종16년)부터 제주
목, 정의현, 대정현을 두고 목사 현감을 임명하자 조선왕조의 제주에 대한
지배권은 더욱 확고히 되었고, 제주 고유의 의례, 지명, 문화 등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제주도 지역에 대한 지배권 강화 차원으로 지맥을 무
시하고 추상적인 이기론 중심의 풍수지리 이론이 많이 보급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주도의 고유적인 문화는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되었으나 아직
도 제주도 지역은 고대어나 변형 이전의 고유문화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2 제주도의 풍수적 개관

1) 삼성신화를 통해서 본 제주도 풍수지리 사상

① 탐라국 개국신화와 풍수지리

제주도에는 기원전 1만 2천년 경 이후부터 한반도와 동시대에 사람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문헌으로 1451년(조선 문종 원년)에 완성된 고려사지리지에 삼을나三乙那²⁶⁾의 개벽신화가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그림3-2> 대동여지도의 용맥 흐름도

고양부 삼을나『高良夫 三乙那』라는 신인 세 사람이 땅에서 솟아나와 거친 곳에서 사냥을 하며 살았는데 하루는 동쪽 바닷가에 나무 상자가 떠올랐다. 이를 열어보니 함속에는 돌 상자가 있고 붉은 허리띠에 자주 빛 옷을 입은 사자가 있었다.

돌 상자를 열자 푸른 옷을 입은 세 공주와 송아지, 망아지, 오곡 씨앗이 있었

26) 고을나, 양을나, 부을나,

는데 사자가 말하기를 ‘우리 임금의 세 공주를 낳으셨는데 서쪽 바다의 높은 산에 신(神)의 아들 세 사람이 내려와서 장차 나라를 열고자 하니 배필이 없다고 하여서 저에게 세 공주를 모시고 가도록 하였습니다.

마땅히 배필로 삼아 대업을 이루도록 하소서’ 하고는 홀연히 구름을 타고 가버렸다. 삼을나(三乙那)는 나이에 따라 차례로 배필을 정하고 활을 쏘아 살아갈 땅을 정하였는데 일돌리(一徒里), 이돌리(二徒里), 삼돌리(三徒里)라 하였다.

위의 신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하루는 동쪽 바닷가에 나무상자가 떠올랐으며 나무상자(함) 속에는 돌상자가 있고 붉은 허리띠에 자주 빛 옷을 입은 사자가 있었다.

돌 상자 속에는 푸른 옷을 입은 세 공주와 송아지, 망아지 오곡 씨앗이 있었으며 삼신인과 세공주가 짝을 이루기를 바랐다.」

위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동쪽 바닷가에서 동쪽은 木이며 木은 ‘산세가 머물러 중심출맥(中心出脈)함’을 말하며 바닷가는 ‘붉은 돌’이 있는 상자이며 이 상자는 상자목(桑柘木)으로 혈이 형성된 것을 말하고 붉은 허리띠에 자주(紫朱)빛 옷을 입은 사자(使者)는 강(強)한 생기(生氣)를 말하며 양(陽)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며 푸른 옷을 입은 세 공주는 내룡의 기를 받은 ‘세 穴’로 음(陰)이 되고 여기에서 사자는 양(陽)이고 공주는 음(陰)이라 생각되고 송아지(松兒至)는²⁷⁾ 쇠(衰)하여 내리는 내룡(來龍)이며 망아지는 ㅁ루이고 오곡 씨앗은 오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삼신인과 세공주가 혼인한 내용에서 삼신인은 내룡(來龍) 셋을 말하고 세 공주는 세 穴로 보면 내룡 셋과 세 혈이 각각 배합된 것으로 보여 지며

27) 이는 술가들에 의하여 宋下秘訣로 나타난다.

활을 쏘아 살아갈 땅을 정하였다는 말은 혈 자리 모양이 활시위를 당긴 것과 같으므로 혈자리가 형성된 명당을 찾아 살아갈 땅을 정하였다는 말로 보여진다. 활을 쏘아 정하여진 땅은 일도, 이도, 삼도라 하였는데 여기서 도(徒)는 ‘걸을도, 무리도’ 이므로 한번 두 번 세 번 걷는다는 의미이며 내용이 세 번 나아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주시 지세도에서 보면, 일승(一乘) 이승(二乘)·삼승(三乘)을 의미한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개국 신화의 골자는 내용이 세 번 나가 세 혈을 이룬 명당에 거주지를 정하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 셋은 삼신인으로 삼신사상과 연결되며 오곡은 오행과 연결되어 오제와도 연결된다. 따라서 탐라국 개국신화는 풍수지리 원리인 음양오행사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내용이 세 번 내린 곳에 거주지를 정하였는데 실제로 탐라국 발생지는 내룡(來龍)이 세 번 내린 명당’이다. 이것은 또한 단군 신화에 나오는 삼위태백(三危太白)과도 같은 내용이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제주시 삼성혈 주변 지세도와 탐라국 발상지 명당도를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구체화할 수 있고 제주도의 풍수사상을 삼성신화 즉 탐라국 개국신화에서 분석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 제주도 풍수지리 이론은 한라산에서 밀어 내려오는 지맥을 중심으로 성립되었으며 혈은 지맥이 생하는 곳에 존재한다.

나) 용진혈적 하여야 명당이 존재하므로 용이 나감이 양(陽)이고 용이 머무는 것이 음(陰)으로 표현하여 음양사상이 출현하였다.

다) 이상적인 명당을 이루려면 ‘용이 세 번 밀어내린 곳’ 이라야 하며 이는 삼신사상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서 팔괘가 출현됨을 알 수 있다.

라) 혈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산을 현무라 하여 이를 중심으로 백호, 주작, 청룡이 성립되고 이를 바탕으로 오행과 오제사상이 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제주도 풍수지리 사상은 한라산을 정점으로 한 지맥 중심의 사상이었으며 이러한 사상은 제주도 지명과 전설, 민요, 의례 등 모든 분야에 그 영향이 미치게 된다. 그렇다면 풍수지리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명당이므로 명당이란 의미를 검토하여 본다.

문헌상(예기)으로는 주나라 무왕의 아들 성왕이 나이 어려 즉위하여 삼촌인 주공단(周公旦)이 7년간 섭정시 제후 들을 준비귀천에 따라 서열대로 입조시켜 신분을 분명하게 밝히는 당실(堂室)을 명당(明堂)이라 하였고 왕이 잠시 머물러 있는 거실로서 왕도에 따라 정치상의 명령을 내리는 장소라 하여 천자가 계절마다 돌아가면서 조회하는 곳 중 여름철 4, 5, 6월 달 3개월 동안 조회하는 곳이 명당이라 하였다. 하며 한나라 무제 6년(B.C 105)에 태일신과 오황제의 위패를 명당의 상좌에 안치하고 한나라 고조의 신위를 마주보게 배치하여 제사지내는 곳을 명당이라 하였다고도 한다.²⁸⁾

그리고 현재 일반적으로 명당이란 음택(陰宅)에서는 본래 혈 앞 즉 분묘 앞을 말하고 양택에서는 주 건물의 순전을 내명당(內明堂)(안산 앞)이라 하고 이 내명당(內明堂)에 비하여 약간 광대한 평지를 외명당(外明堂)(조산 앞)이라 한다.

이곳은 생기가 내용을 좇아 내려와 머무는 곳인데 ‘붉은 돌(月)’이란

28) 제주교육박물관, (전통문화강좌 2004), p100

뜻이 된다. 여기서 둘은 하늘에 있는 달이 아니라 ‘생기가 도달하여 있는 곳’이란 뜻이며 생기가 도달하여 있으므로 이곳은 밝은 곳이며 광명의 세계이며 ‘붉은 돌(月)’이란 명칭에서 자연적으로 명당(明堂)란 말이 나오게 된다.

이 붉은 돌이란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주의 본원인 기가 태조산에서 발원하여 중조산을 거쳐 소조산인 주산에 이르러 낙맥하고 중심 출맥하여 혈(穴)에 이르게 되는 데 태조산(太祖山)에서 시작하여 주산에 이르는 부분을 천산룡(穿山龍)이라 부르고 주산에서 현무봉을 거쳐 혈에 이르는 부분을 투지맥(透地脈)이라 한다.

천산룡(穿山龍)은 천(天)이고 투지맥은 지(地)이며 혈은 人이 사는 곳이므로 동양사상의 기본 원리인 천지인 삼재(天地人 三才)가 여기에서 탄생한 것이고 혈에 이르는 과정은 삼단계이나 혈에 이르러 음양충화(陰陽沖和)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음양충화(陰陽沖和)하여 하나가 되는 곳이 ‘붉은 돌’²⁹⁾이며 밝은 기가 도달한 곳이다. 여기서 내용은 아버지를 의미하여 하늘의 정기를 받는다 하고 어머니는 붉은 돌을 의미하여 하늘이 인간을 소생하여 땅이 이를 기르나니 땅은 인간을 기르는 어머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선조들은 묘지나 거주지로서 붉은 돌을 택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곳에서 우리 선조들은 제천행사를 열었는데 그 명칭은 동예의 무천(舞天), 부여의 영고(迎鼓), 고구려의 동맹(東盟), 고조선의 무천(舞天) 등이다.

29) 둘은 多來(多來)에서 나온 것이며 多리는 지기가 크게 내린다는 뜻이라고 본다.

2) 풍수지리가 제주도 문화에 미친 영향

(1) 의례에 미친 영향

제주도의 풍수지리 사상은 위와 같이 한라산을 정점으로 하고 지맥을 중심으로 한 풍수지리 사상인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중국에서 평지 이론을 중심으로 한, 즉 이기론이 도입되면서 지맥이 없는 풍수지리 사상으로 변천된다. 이러한 변천은 제주도 문화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중의 하나를 예로 든다면 집안에서 행하는 문전제(門前祭)를 들 수 있다. 문전제(門前祭)라 함은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기 전에 대문³⁰⁾ 앞에서 간단히 차례를 지내는 것을 말하는데 제주도내 집안 대부분은 출입문 쪽에서 지내고 있으나 소수는 내룡(來龍)을 향하여 지내고 있다.

신(神)이란 기(氣)의 흐름을 말하며 형세론(形勢論)에 따라 지기(地氣)를 중심으로 본다면 당연히 내룡을 향하여 제(祭)를 지내야 할 것이나 이기론(理氣論)에 따르면 출입문 쪽을 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장례를 지내기 이전에 올리는 토신제(土神祭)의 진설에서도 나타나는데 조선 시대 도암 이재 선생이 지은 사례련람(四禮便覽)에 보면 남향으로 진설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 지형은 용맥이 한라산에서 발원하여 동서남북으로 분맥하고 있으므로 형세론적 이론에 따라 내룡을 향하여 제(祭)를 지내야 할 것이다.

30) 제주도에서의 대문은 마루방의 앞문을 가리키며 구태여 육지부의 대문에 해당되는 문으로 지적하자면 간혹 볼 수 있는 이문(이문간)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성기, (제주민속의 아름다움 2003) p148 이문은 離門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이기론이 득세를 하게 되었고 조선조의 중앙집권 정책은 탐라 고유의 문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므로 제주도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형세론적 입장은 존재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한 결과로 제주도의 문화는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으니 고유문화를 재생하는 기본원리는 풍수지리 사상이어야 한다.

(2) 탐라국 명칭에 미친 영향

역사적 기록으로 탐라국 혹은 제주에 대한 명칭을 보면 도이 주호국 섬라 탐모라 탐부라 탁라 도라 토화 라국 도화라 (島夷 周胡國 涉羅 耽牟羅 耽浮羅 毛羅 度羅 吐火 羅國 都火羅) 등이 있으며 각각의 의미를 위의 삼승(三乘) 개념에서 풀이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생각된다.

탁라(毛羅)라는 국명을 보면 고려 숙종 10년(1105년) 탁라라는 국명을 탐라군(耽羅郡)으로 고치고 직접 관원을 파견하였다 하는 것을 보면 탐라국 이전에 탁라라는 국명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탁라를 삼국유사에서는 탁라로 표현하였으며 탁(毛)은 자전에서 ‘밀탁’이라 하였으므로 탁은 ‘밀다’라는 뜻이고 라(羅)는 벌 또는 나(那)(多.大)이므로 벌, 큰 혹은 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니 벌 혹은 들은 지맥이 들어왔다는 의미로 혈이 형성됨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탁라라는 명칭은 ‘지맥이 들어온 혈’이라는 의미로 보이며 탁라국 발상지는 중심 출맥한 주룡이 삼승(三乘)하여 내려온 사실과 일치되어 삼성사 재단에서도 탐라국(耽羅郡)의 명칭을 탁라국(耽羅郡)이라 표기하고 있다.

다음에 耑牟羅(담모라)를 보면 ‘지맥이 크고 밝게 내려온 벌’이라는 의미로 생각되는데 크고 밝게 내려온 데서 크고는 다(多)와 같은 의미이고 보리(寶來)는 밝게 또는 귀하게 내린다는 의미가 되며 이를 이두식(吏讀式) 표기로 하면 다모라(多毛羅)가 된다.

다모라는(耑浮羅)로 변화되고 담모라는 탐모라로 변화되며 탐모라가 줄어져서 탐라(耽羅)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3) 지명(地名) · 신화 · 전설에 미친 영향

① 지명 신화 전설의 형성과 풍수지리

사람들은 주거지를 선택할 때 바람과 물을 따지지 않을 수 없으며 바람과 물에 영향을 주는 산세나 지형을 관찰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풍수이론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인류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언어가 발생하고 집단 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영역을 표시하고 지속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명이 형성되고 신화와 전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명이나 신화·전설 등은 산세·지형·바람·물 등의 풍수적 요소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거의 변화가 없는 땅과의 밀착성을 갖는다는 가능성은 매우 큰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습 곧 산세나 지형을 보고 인간이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다면, 산세나 지형을 중심으로 한 사상 또한 그 지명이나 전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지명이나 전설은 우리 민족의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과 역사발전의 과정, 생활방식과 가치관 등 민족의 총체적 활동 결과가 담겨진 것으로서 고유한 역사, 땅모양, 생활, 옛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오름(山)의 명칭

또한 오름(오름)의 명칭을 보면 거문오름이 있다.

거문자(巨門字)가 붙은 오름으로 제주시 연동에 거문오름, 구좌읍 종달리에 동거문오름, 조천읍 선흘리에 서거문오름 등이 있는데 혈(穴)을 생(生)하는 기(氣)가 강한 오름'이라는 의미로 생각되며 거문오름 아래에는 신제주 지역이 형성되어 큰 취락을 형성하고 있다

혈을 생하는 기가 강한 오름은 크게 생기가 강한 오름이란 말이고 생기가 강하면 크게 빛나는 것이니 '크게 빛나는 오름'으로 된다. 여기서 크게는 거(巨)로 표현되고 빛나는 은 문(門)(文)으로 표현되며 오름은 악(岳)이므로 이를 합하면 거문오름이 된다.

오늘날 풍수서적에는 거문(巨門)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제주지역에 존재하는 혈도에는 거문(巨文)으로 표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사소거문악두계관형(四所巨文岳垂頭鷄冠形) 사소거문악목란반개형(四所巨文岳木蘭半開形) 사소거문악남변병좌황룡회수형(四所巨文岳南邊丙坐黃龍戲水) 오소장하거문덕봉하(五所場下巨文德峰下) 등 巨文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오름이란³¹⁾ 말은 한자로는 오음(吾音)이라 표현되는데 '혈을 생하는 용맥이 밝게 내린다'는 의미라 생각된다.

다) 돛드르(猪野)의 명칭

서귀포시 토평동에 '돛드르'라는 지명이 있는데 멧 돼지가 많이 있었다하여 이루어진 이름이라 하나³²⁾ '지맥이 내려와 머뭇이 강한 드르'

31) 실제 소리는 대부분 '오름'이라 하는데 현재 그 어원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오름(烏廬)이라 생각된다.

에서 지맥이는 도로 표현되고 내려와 머뭇은 이지(泥止)로 표현되며 ‘강한 드르’는 야(野)이다. 이를 합하여 보면 「도이지-드르」가 되고 도이지는 도야지 이므로 도야지들로 변하며 다시 돛드르 로 변한다. 따라서 돛은 猪이므로 돛드르는 저야(猪野)가 되고 12지지로는 해(亥)가 된다.

라) 경주김씨 집안의 전설

전설의 요지는 풍수사가 정하여 준 곳은 지명이 ‘반득이’란 곳이고 풍수사가 정해진 자리에서 청비들기 한 쌍이 날아갔는데 그 청비들기가 내려앉은 곳에 산나무로 기둥을 삼아 집을 지으라 하였다.

큰 느티나무 위에 있는 독수리를 활로 쏘니 그것은 여우였으며 그 후로 집에 여자가 들어오고 말이 많이 붙어났고 크게 발복하였다.

위에서 ‘반득이’는 ‘반득(班得)이’라고 쓰기도 하나 반득 ‘(盤得)이’의 의미도 되므로 ‘지기가 서리어 있다’는 말이다.

반득이 혈 자리에서 청비들기 한쌍이 날아가서 내려 앉았다는 말은 청비들기는 ‘생기 있고 밝게 므루에서 지기가 들어온 것’을 말하므로 지맥이 내려와 머물렀다는 말이 된다. ‘생기 있고 밝게 므루에서 지기가 들어온 터’에서 ‘생기 있고’는 ‘푸름’을 의미하고 ‘밝게’는 ‘비(匕)’로 표현되고 ‘므루에서’는 ‘두(斗)’로 표현되고 ‘지기가 내려온’은 ‘리(來)’로 표현되므로 기(基)’와 합하여 보면 ‘푸른-비-두리-기’가 된다. 푸른-비-두리-기 에서 ‘푸른’은 청(淸)으로 표현하면 ‘청비들기’가 된다. 그리고 청비들기가 내려앉은 곳에 산 나무를 기둥삼아 집을 지으라 하였는데 ‘산 나무는 중심 출맥한 입수룡’을 말하는 것으로 지맥을 잘 맞추어 집을 지으라 한 것이다. 구름이 낀 것은 내룡(來

32) 박용우, 「제주도 땅이름연구」. p59

龍)이 강하게 내려옴을 말하고³³⁾ 독수리가 화살을 맞으니 여우였다는 말은 내룡이 밝게 내려와 와 혈지가 되었다는 말이다³⁴⁾. 독수리를 쏜 후에 집안이 발복한 것은 명당에 지맥에 맞추어 집을 지어 살면 집안이 번창할 수 있다는 말이다.

마). 이어도와 명당

이어도란 말은 환상의 섬, 또는 이상향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으나 이어도란 말을 풍수지리적 관점으로 보면 이어도는(泥御都)용맥이 다하여 내룡이 이른 곳 즉 붉은 돌이 됨)라 표현할 수 있는데 명당이란 말이 된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우리 선조들은 기가 밝은 곳 즉 명당에만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고 거기에 사는 것이 희망이었으며 이것은 또한 인간들도 밝은 기를 가져야 함을 말하는 것인데 일상생활에서 이어도를 부른 것으로 보여 진다. 전설상으로 보아도 이어도는 여자만이 산다고 하는데 명당은 여성을 상징하는 데서 유래된 것이고 남자가 이어도에 가면 죽는다는 것은 용맥은 남성을 상징하고 명당은 여성을 상징하여 내룡(來龍)이 명당에 이르러 음양충화(陰陽沖和)하는 것을 죽는다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며 등장인물인 대현정강씨(大懸鄭姜氏)는 강(岡)내룡(來龍)이므로 강은 명당에 이르러 죽게 된 것이다. ³⁵⁾

33) 주역에 ‘雲行雨施하야 品物이 流形하나니라(구름이 행하고 비가 베풀어서 못 물건이 형상을 흘리느니라)’ 하였는데 운행은 산세가 크게 들어온 것이고 우시는 생하는 것을 의미하니 ‘기가 크게 들어와 생하면 모든 물건이 형을 나타낸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김석진, (주역전의대전역해 2007) p175

34) 변창두, 한성대학교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2

35) 姜자는 양羊에 계집女인데 ‘穴을 生한다’ 는 의미이고 대정현은 ‘크게 머무른 혈’ 이

3. 제주시의 풍수적 고찰

1) 개요

제주도 지역의 산세는 한라산 정상에서 동서남북으로 사방 열십자 방향으로 산줄기가 내려 이를 중심으로 하여 분맥하면서 해안 지역으로 내려간다. 이러한 결과로 제주도 지역의 산세는 북동방으로 NE 20도 상승하고 남서쪽으로 SW 20도 하강 형태를 이루면서 S 자 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행정구역에 따른 제주시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으로 나눌 수 없고 산세의 흐름을 감안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제주시 지역은 원도심권, 신제주권, 조천읍 지역, 구좌읍 지역, 애월읍 지역, 한림읍 지역, 한경면 지역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사진3-3> 제주시 지역(인터넷활용)³⁶⁾

36) 다음출처

2) 제주시 원도심권

이 지역은 제주시 건입동 봉개동 삼도1동 삼도2동 삼양동 아라동 오라도 용담1동 용담2동 이도1동 이도2동 일도1동 일도2동 화북동을 이루는 지역으로 고대 탐라국 시대부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지역이다.

이 지역의 산세를 보면 한라산에서 열십자 방향 중 하나의 간룡이 북쪽으로 내려 분맥한 용맥은 흙붉은 오름으로 내리는 일지맥과 관음사 지역으로 내리는 일지맥으로 나누어진다.

한라산에서 개미목 동측으로 내리는 용맥은 관음사로 내리는 용맥과 들위오름으로 내리는 용맥으로 나누어지고 관음사로 내리는 용맥은 죽성지역으로 내리는 용맥과 소산봉으로 내리는 용맥으로 나누어지고 죽성지역으로 내린 용맥은 구남동 고산동산 현재의 삼성혈 서측을 거쳐 탐라국 발상지 북측인 남문 로타리에 이르러 제주시 지역의 중심 맥을 이루었고 다시 천심하여 중앙 성당지역을 지나 탐라국 성주청 자리에 머무르고 칠성로를 지나 산지천 조천석(朝天石)³⁷⁾ 방향으로 내려가 끝을 맺으며 이 내용을 중심으로 칠성대를 세운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산천단으로 내린 용맥은 인다라 아라2동 지역으로 내려 한마음병원 일대를 거쳐 건입동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큰 취락을 형성하여 왔다.

또한 한라산에서 들위오름 지역으로 내린 용맥은 ㄱ다시(加多時) 지역에 머무르게 되며 옛 ㄱ다시(加多時) 마을 밑에 혈자리를 형상하고 좌청룡은 남지농업연구소를 거쳐 종합경기장 제주향교에 이르게 되며 우백호로 내린 용맥은 도남동을 거쳐 서사라(西紗羅)³⁸⁾ 지역에 이른다.

37) 이 조천석은 조선시대 까지 기도처이나 산지천 복개공사를 하면서 매몰되었다가 다시 복개를 철거하게 되자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원석은 제주대학교박물관으로 이전되고 현재는 그 대용으로 정체불명의 석상을 만들어 세워져있다.

38) 서사라의 의미는 서쪽에서 내용이 안정과 균형을 이루도록 받든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한라산에서 흙붉은 오름으로 내린 일지맥은 삼의양오름을 거쳐 제주대학교에 이르고 한 갈래는 불칸디오름을 거쳐 쌀손장오리에 이르며 쌀손장오리에서 일지맥을 이루어 월평동을 거쳐 사라봉에 이르고 한 지맥은 용강마을을 거쳐 화북동에 이른다.

다시 쌀손장오리에서 나누어진 지맥은 물장오리, 개월오름에 이르고 개월오름에서 한 지맥은 큰지그리오름으로 내리고 또 한지맥은 거친오름을 거쳐 발생이 오름, 안생이오름 연안지기오름을 거쳐 봉개동 마을을 형성하고 도련동 삼양동 원당봉에 이르며 큰지그리오름으로 내린 지맥은 작은지그리오름을 거쳐 회천동을 형성한다.

3) 신제주권

이 지역은 제주시 노형동 도두동 연동 외도동 이호동 지역을 이룬다.

한라산에서 출맥한 용은 큰두레왓으로 중심출맥하고 작은두레왓으로 좌청룡을 형성하고 개미목³⁹⁾ 서부지역이 백호를 이루어 분맥하고 있다.

큰 두레왓으로 중심출맥한 주룡은 아흔아홉굴, 노루생이를 거쳐 거문오름에 이르러 머물면서 상여오름으로 출맥하고 천마목장지역으로 청룡맥을 이루고 민오름지역으로 백호맥을 형성한다.

또 상여오름에서 출맥한 주룡은 광이오름을 거쳐 남조순오름에 이르나 이에 머물고 상여오름에서 수목원 서측을 지나 분맥하면서 좌청룡은 함박이굴을 거쳐 광평마을에 이르고 다시 이호동에 이른다.

우백호는 월랑마을에 이르고 중출맥한 주룡은 방일이 동산에 이르러 구

마찬가지로 동쪽에는 사라봉(紗羅峰)이 있다.

39) 개여목(蟻項穴)이라고도 하는데 전설에 의하면 제주도 6대명혈 중의 하나로 알려진 곳이나 그 의미는 ‘지맥이 부풀어 지기를 탐이 크다’는 것으로 생각되며 혈은 명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부분이란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유맥육백년사」, 1997 p1018

노형동사무소를 지나 북진하여 도두봉에 이른다.

거문오름에서 갈린 청룡맥은 천마목장 월산 노형동 서부 내도동 등을 형성하고 거문오름에서 출발한 백호맥은 민오름에 머물러 조설대를 거쳐 연미마을에 이르고 다시 북진하여 중땡이굴에 이른다.

민오름에서 내청룡은 비월동을 거쳐 제주도청 별관에 이르고 해태동산을 거쳐 다호마을에 이른다.

한편 큰두레왓에서 좌청룡으로 분맥한 청룡맥은 작은두레왓, 어승생 행나동 도평동 등을 이루었다.

4) 조천읍 지역

조천읍 지역은 한라산에서 흙붉은오름 물장오리 개월오름을 거쳐 큰지그리오름에 이르러 분맥하여 바늘오름지맥과 돛배오름지맥으로 나누어진다.

큰지그리오름에서 바늘오름으로 내려와서 생이오름 피고리오름 기시내오름지맥으로 나누어지고 바늘오름에서 생이오름으로 내려온 지맥은 대흘리 조천리 양천동을 거쳐 조천리 마을을 형성하고 바늘오름에서 기시내오름으로 내려온 지맥은 와흘리 동수동을 거쳐 신촌리 마을을 형성하였다.

바늘오름에서 피고리오름으로 내려온 지맥은 당오름 고분다리 봉소동을 거쳐 함덕리 신흥리 마을을 이루었다.

큰지그리오름에서 돛배오름으로 용맥이 내려 대천악, 민오름을 형성하고 민오름에서 우진제비로 지맥이 내려 우진제비 혈을 만들고 대천악에서 부소오름 부대악을 거쳐 서거문오름 윗밤오름, 알밤오름 신흥리 마을 지역을 거쳐 북촌리 마을을 이루었다.

5) 구좌읍 지역

서거문오름에서 민오름으로 내려 야오름 높은 오름 동거문오름 칠오름으로 분맥하며 높은오름 지맥은 월랑봉을 이루어 세화리 상도리 하도리 마을을 형성하고 일지맥은 돛오름에 이르며 야오름에서 지맥이 내려 송당마을을 이룬다.

동거문오름에서 손자봉 용눈이오름 은월봉 등을 거쳐 지미봉에 이른다. 거친오름 지맥은 서거문오름에서 거친오름으로 분맥하고 거친오름에서 체오름 둔지봉에 이르러 행원리 한동리 마을을 이루며 샘이오름 지맥은 서거문오름에서 샘이오름으로 분맥하여 안돌오름 박돌오름에 이르고 또한 일지맥은 북오름으로 내려 덕천리 마을을 이루고 다시 내려와서 묘산봉을 이루고 김녕리 동복리 마을을 형성하였다.

6) 애월읍 지역

한라산에서 서쪽으로 뺨어내린 일지맥은 망체오름을 거쳐 삼형제오름에 이르고 삼형제오름에서 분맥하여 붉은오름 노로오름 한 대오름으로 나누어진다.

붉은오름지맥은 붉은오름에서 천아오름을 거쳐 산심봉에 이르고 산심봉에서 분맥하여 일지맥은 극락오름 향바두리 하귀2리 마을을 형성하고 산심봉에서 내려온 한 지맥은 칠성동산에 이르러 세 갈래로 나뉘어 동측 지맥은 광령1리 외도동을 이루고 중앙지맥은 윗니동을 이루고 서측지맥은 고성리 파군봉을 거쳐 동귀마을을 형성한다.

7) 한림읍 지역

한림읍 지역은 왕이매에서 일지맥이 내려와 누운오름에 이르고 중심맥은 고분장 동명리 문수동 소도캐동산과 고승이 마루에서 일승을 이루어 지기를 가하고 있다.

이 소도캐동산과 고승이마루에서 우백호로 출맥하여 구남밭 서대왓을⁴⁰⁾ 거쳐 신산마루에 이르러 이승을 이루어 용이 고개를 쳐들고 있다.

신산마루에 이른 내룡은 재기동산에서 좌청룡으로 출맥하여 동명리 한천동 물동산과 먹드리동산에 이르러 머무른다. 이 물동산과 먹드리 동산에서 중심 출맥하여 한천동 지방돌목을 거쳐 산신동산에 이르러 혈지를 형성하니 고명월 일대이고 한림읍의 중심지가 된다.

한편 고승이 마루에서 산신동산에 이른 중심출맥을 중심으로 하여 동쪽으로 내린 우백호 산줄기들은 상대리 대림리 수원리 한수리 한림 123리 마을을 형성하고 서쪽으로 내린 좌청룡 산줄기들은 명월리 금악리 상명리 월림리 옹포리 협재리 금능리 월령리 마을 등을 형성하여 동서로 고명월을 감싸고 있다.⁴¹⁾

8) 한경면 지역

한라산에서 서쪽으로 내린 지맥이 당오름에 이르고 당오름에서 돌오름 문도지오름을 거쳐 마중오름에 이르고 마중오름에서 분맥하여 일지맥은 청수리 방향으로 내려가 가마오름에 이르고 또 한지맥은 마중오름에서 저지오름에 이른다.

가마오름지맥은 가마오름에서 신서악으로 내려가 신양리 마을을 형성하고

40) 서대왓에서 서(鼠)는 쥐이며 쥐는 12지지 중 첫째로 산세에서는 개장을 이룬 곳을 의미한다. 제주도에서는 쥐를 중이(仲泥)라고 하며 소길마을에 중이동산이 있는데 중심출맥하는 곳이다. 동명향토, p56

41) 「동명향토지」. 2009, p53

다시 신서악에서 내려가서 대정읍 무릉리 일파리 동일리 마을을 형성하고 구분오름에서 녹남오름으로 내려온 지맥은 신도리 마을을 형성한다. 저지오름지맥은 저지오름에서 이계오름으로 내려 낙천리마을을 형성하고 조수리 방향으로 내려가서 한원리와 용당리 두모리 신창리 마을을 이룬다. 또한 저지오름에서 북쪽으로 내려온 지맥은 판포오름에 이르러 판포리 마을을 이루었다.

4. 서귀포시 풍수적 고찰

1) 서귀포시 중심 지역

서귀포시 지역은 제주도 남부지역으로 동쪽으로는 성산읍에서부터 서쪽으로는 대정읍에 이르는 지역인데 그 중간 지점은 서귀포시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영천동, 서홍동, 대륜동 지역 일대를 말한다.

이 지역은 한라산에서 남쪽으로 내려간 간룡이 대월동 지맥과 인정오름 지맥으로 갈리며 대월동 지맥은 대월동을 지나 동홍동 보목동을 이루고 인정오름 지맥은 인정오름에 머물러 토평동 마을을 이루며 시오름으로 내려온 지맥은 동측선은 서홍동 중앙동으로 내려 사귀포시 중심맥을 형성하고 중앙선은 굴왓을 지나 서귀포 시청을 거쳐 소남머리에 이른다.

영천악으로 내려온 지맥은 칩오름에 이르러 상호마을을 이루고 다시 월라악으로 내려서 신호 하효 마을을 이룬다.

고근산 지역으로 내려온 지맥은 서호동 지맥과 신시 가지맥으로 나누어지고 신시가지 지맥은 해안가에 이르러 법환동 마을을 이룬다.

2) 중문동 지역

이 지역은 한라산에서 서쪽으로 내려간 일지맥이 영실에 이르러 범정악 지맥과 녹하악 지맥으로 나누어진다.

범정악 지맥에서 동쪽 지맥은 원만사에 이르고 중앙지맥은 범화사, 하원동에 이르며 하원동 지역에서 동측은 도순동 강정동에 이르고 중앙지맥은 월평동에 이르며 서쪽 지맥은 군산봉에 이른다.

또한 영실에서 녹하지악으로 분맥한 지맥은 모라이악에 이르러 분맥하여 동측지맥은 천서동 색달동을 거쳐 중문관광단지에 이르며 서측 지맥은 우보악에 이른다.



<사진3-4> 서귀포시 지역(인터넷활용)⁴²⁾

42) 다음출처

3) 안덕면 지역

영아리오름에서 남서방향으로 지맥이 내려 술악 병악을 거쳐 창천리 마을을 이루고 논오름에 이르러 화순리 마을이 형성되고 논오름에서 산방산으로 내려오고 산방산에서 단산에 이르러 사계리 마을을 형성하였다.

또한 영아리 오름에서 상천리로 내려 마을을 형성하고 상에2동을 지난 후 군산에서 박환하여 월라봉과 대평리 마을을 이루었다.

4) 대정읍 지역

왕이매에서 조근대비를 거쳐 원수악에 이르러 마전동 마을을 이루고 거린오름에 이르러 서광동리 마을을 형성하며 고아해악에 머물러서 일지맥은 덕수리 마을을 이루고 중앙맥은 안성리를 경유 모슬봉에 이르러서 박환한 후 상모리 하모리 마을을 이루고 남으로 송악산에 이르고 북으로 가시악에 이른다.

한편 광해악에서 서쪽으로 진행하여 서광서리 무릉리 신평리 구역리 일과리를 형성한다.

5) 남원읍 지역

한라산에서 동쪽으로 내린 후 분맥하여 성널오름 지맥과 수악오름 지맥으로 나누어진다. 성널오름지맥은 성널오름에서 물오름 동수악 논고악 보매악 지맥으로 나누어지고 성널오름에서 내린 물오름지맥은 고평이오름 지맥과 민악지맥으로 나누어지는데 괴평이 오름지맥은 수령산으로 내려와서 여절악 지맥과 웅악 수망리 맥으로 나누어지며 여절리 지맥은 신흥리마을을 형성하고 수망리 지맥은 태흥2리마을을 형성한다.

물오름에서 민악으로 내려온 지맥은 의귀리 만려악을 거쳐 태흥1리 마을

을 형성한다. 성널오름에서 동수악으로 내린 지맥은 동수악 일대에 혈을 형성하고 논고악으로 내린 지맥은 사련이 마체악 거인악을 형성하고 한남리 운지악을 거쳐 남원 2리 남원1리 마을을 형성한다.

논고악 서측으로 내린 지맥은 흑악을 거쳐 매승악에 이르러 매승악 동측으로 내린 지맥은 고이악을 거쳐 자배봉에 이르러 위미리와 대성동 종정동을 형성하였으며 매승악 서측으로 내린 지맥은 생기악에 이르러 위미리를 형성하였다.

한편 성널오름에서 서측으로 내린 지맥은 보매아을 거쳐 대한농장 일대에 이르렀으며 한라산에서 수악으로 내린 일지맥은 학림동 걸세악을 거쳐 하례리 마을을 형성하였다.

6) 표선면 지역

한라산에서 성널오름 물오름 괴평이오름 거문오름에 이르러 붉은오름 지맥과 구드리오름 지맥으로 나누어진다.

붉은오름 지맥은 붉은오름에서 분맥하여 동측지맥은 번널오름 병곳오름을 거쳐 가시리 마을을 이루고 붉은오름에서 서쪽으로 내린 지맥은 영아리오름, 소름가세오름, 알오름에 이르러 알오름에서 토산1리를 형성하고 토산악에 이르러 토산2리를 이루었다.

또한 거문오름에서 구드리오름으로 내린 지맥은 소록산 대록산 새끼오름을 거쳐서 모자오름에 이르러 동측은 장자오름을 거쳐 성읍리 마을을 이루고 모자오름에서 서측으로 내린 지맥은 설오름을 거쳐 갑선이 오름에 이른다. 갑선이 오름에서 서측으로 내려 세화리 마을을 이루고 갑선이 오름에서 물나는 동산으로 내린 지맥은 동측은 달산봉에 이르러 서측으로 내린 지맥은 표선리 마을을 형성한다.

7) 성산읍 지역

한라산에서 동거문오름에 이른 지맥은 손자봉 지맥과 궁대악 지맥으로 나누어지며 손자봉 지맥은 동쪽으로 흘러 손자봉 용눈이오름, 은월봉에 이르고 은월봉에서 동쪽으로 내려 두산봉에 이르러 시흥리 마을을 이루고 지미봉에 이르며 다시 은월봉에서 동남방으로 내려 대왕산 소왕산에 이르러 오조리 마을을 이루고 궁대악 지맥은 분맥하여 한 지맥은 남거산을 거쳐 수산리 마을을 이루며 대수산봉에 이르러 고성리 마을을 이루고 다시 대수산봉에서 소수산봉을 거쳐 신양리 마을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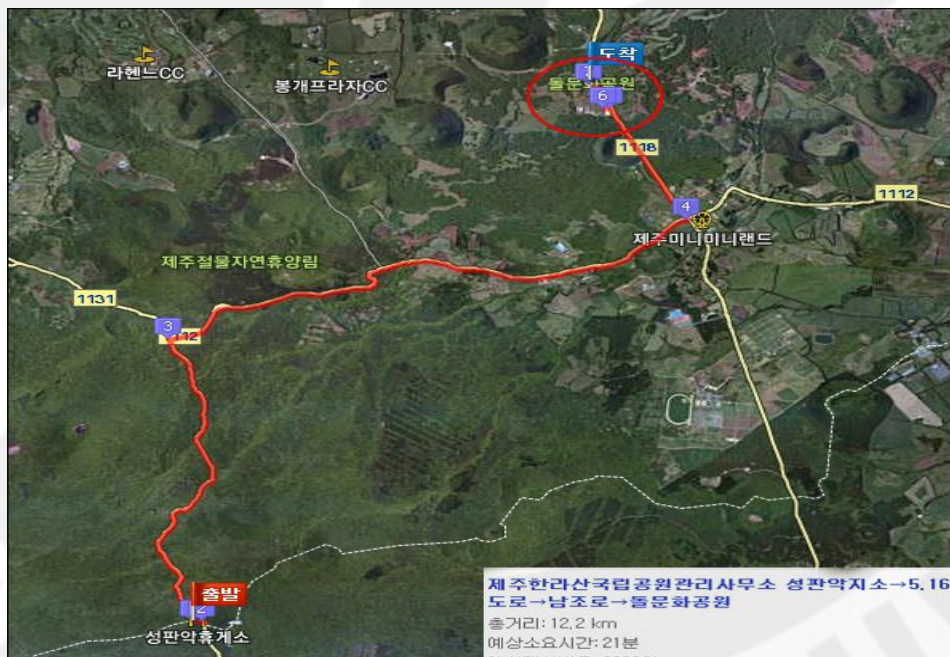
또 한 지맥은 유건애오름으로 내려 난산리 온평리 마을을 이루며 통오름 독자봉에 이르러 삼달리 신평리를 이룬다.

제4장 제주돌문화공원의 풍수지리적 분석

1. 돌문화공원의 개요 및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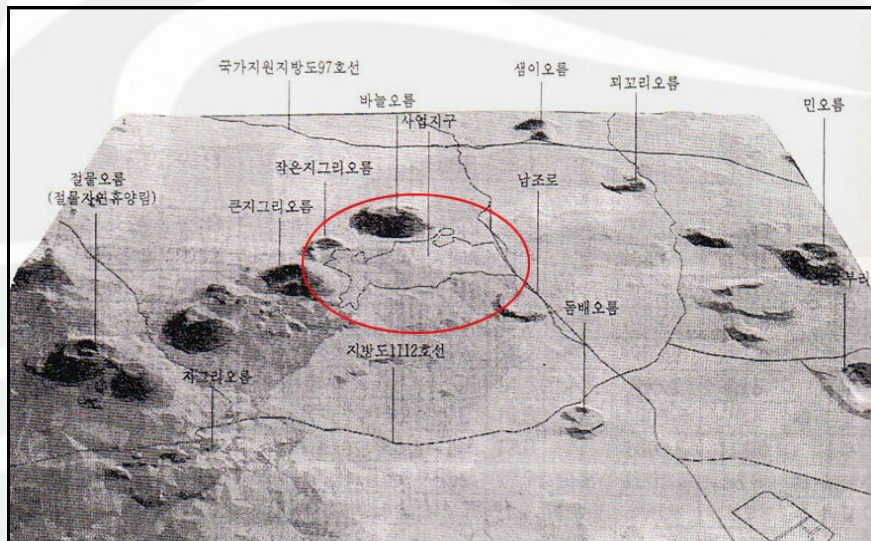
본 사업지구는 제주도 한라산 동측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상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속한다. 제주시에서 17km, 서귀포시에서 36km에 입지하며 제주시에서 약 20분내, 서귀포시에서 약 40분 정도가 소요된다.

주요 접근로는 남조로와 국가지원 지방도 97호선 및 지방도 1112호선을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하다. 부지 서쪽의 큰지그리오름(596m)을 정점으로 하여 북서쪽의 작은지그리오름(506m), 바늘오름(552m)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발달하여 사업지구를 둘러싼 형태를 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전형적인 중산간 특성을 나타내는 초지를 형성하였다.



<사진4-1>돌문화공원 위치도(다음위성)

제주도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전통적인 민속문화가 잘 보전된 관광지로서 그 가치와 중요성이 인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민속문화 및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킬 만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림4-1> 제주 돌문화공원 조성사업 통합p388



<그림4-2> 돌문화공원 위치도

따라서 제주의 돌, 흙 나무 철, 물을 주제로 100여만 평에 종합적인 관광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제주의 전통문화를 세계적인 관광자원화를 위한 초석으로 활용함과 더불어 자랑스런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향토 종합문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우선적으로

1단계 약 30만평을 개발하여 제주도내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자연운치석과 민속 민예품을 한 곳에 집성 관리 보존함으로써 귀중한 자원의 소실을 방지하고 시대적으로 퇴색되어가는 향토문화의 교육장화를 위한 돌 문화공원을 건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⁴³⁾

이에, 북제주군은 100만평의 부지 위에 본 공원의 건설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해서, 가장 제주도적이면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기념비적인 제주 돌문화공원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돌찾아 돌고돈 '돌인생'

"제주의 돌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귀중한 자산입니다"

제주시 아리1동 탐라목석원 백운철 원장(60)은 제주의 돌에 남다른 애착을 지니고 있다. 그가 30여년에 걸쳐 과와 땅으로 가꾼 목석원에 들어서는 순간 돌 하나 하나에 스며있는 깊은 의미와 신비로움을 느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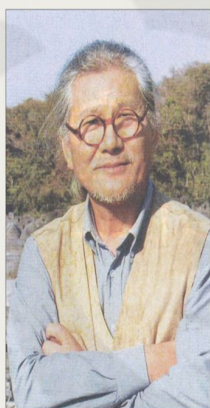
300평 규모의 목석원을 가득 채운 5000여점의 다양한 형상의 돌들이 수만가지 신비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상태의 돌 모양을 그대로 살린 돌탑, 돌하루방, 구멍이 1~6개 돌린 돌정당(문고리), 돌만자방아, 돌릴 구, 돌바퀴, 돌세수대야 등...

산과 바다에 있던 돌을 이곳으로 옮겨와 그가 손을 대는 순간 마치 세 뜻을 갚아주는 듯 달라져 보인다.

그의 '돌 인생'은 제주도가 아닌 강원도 설악산에서 시작했다. 군에 입대해 공병대원으로 3년 동안 내셔널에서 나무를 다듬고 계곡의 돌을 줌은 작업을 하면서 돌과 친숙해졌다.

1969년 제대 후 서귀포에 머물면서 외지에서 장원을



탐라목석원 백운철 원장이 제주의 돌과 민속문화를 주제로 조성하고 있는 돌문화공원을 둘러보고 있다. 제주=주미영기자

제주 돌에 매력 1만여점 수집

76년 개인 목석원 '지역문화재'

후손에 남길 '돌공원'에 최선

제주도는 돌의 고장이다.

화산활동으로 빚어진 제주도는 온 섬이 돌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섬에서 살아오는 제주 사람들은, 삶의 노고와 슬기가 깃들은 독특한 돌 문화를 창조 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제주 돌문화공원 총괄기획팀장 백운철 소장으로 인해 형성되었다고 국민일보 2003년 11월 5일 기사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사진4-2> (국민일보 2003년 11.5일)

43) 북제주군,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 통합(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서」 2003 p17

지난 5월 11일 현지 조사를 위해 제주 돌문화공원을 답산하고 직무실에서 지난 30여년간 수집한 1만 4천여점의 자연석과 석물을 북제주군에 무상으로 기증하여 돌문화공원의 조성에 초석을 놓으신 경위에 대하여 직접 들을 기회가 있었다. 백운철⁴⁴⁾씨는 예로부터 제주도는 바람 · 여자 · 돌이 많다고 하여 제주의 특색인 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군입대 시절부터 약 30년 동안 자연석과 석물을 수집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무상으로 북제주군에 기증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서는 “사회변화에 따라 점점 사라져가는 돌문화를 재조명해 봄으로써, 제주 돌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문화적, 학술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고취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제주도의 생활문화를 체험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 하였다.

또한 제주 돌문화공원의 입지선정을 위해 “3여년 동안 오름을 다니면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설계를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많은 형태를 봐왔다”고 밝히면서 “제주의 정체성, 향토성, 그리고 예술성을 살리면서 아름다운 곳자왓 지대와 조화를 이루는 문화공원조성을 위해 기획설계부터 직접 이 사업에 참여하여 남다른 애착을 가져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입지 선정시에 풍수지리적인 자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른다, 그렇지만 이곳은 대 명당이라고 생각 한다”라고 답하였다.

끝으로 돌문화공원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나아가 돌문화를 통한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44) 제주 돌문화공원 총괄기획팀장

2. 제주 돌문화공원 코스별 배치분석

1) 제1코스: 제주 돌박물관 구역

공원을 들어서면 19계단을 지나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을 주제로 한 전설의 통로, 위령탑, 연못, 모자상 등 다양한 조형물을 만날 수 있다.



<그림4-3> 제1코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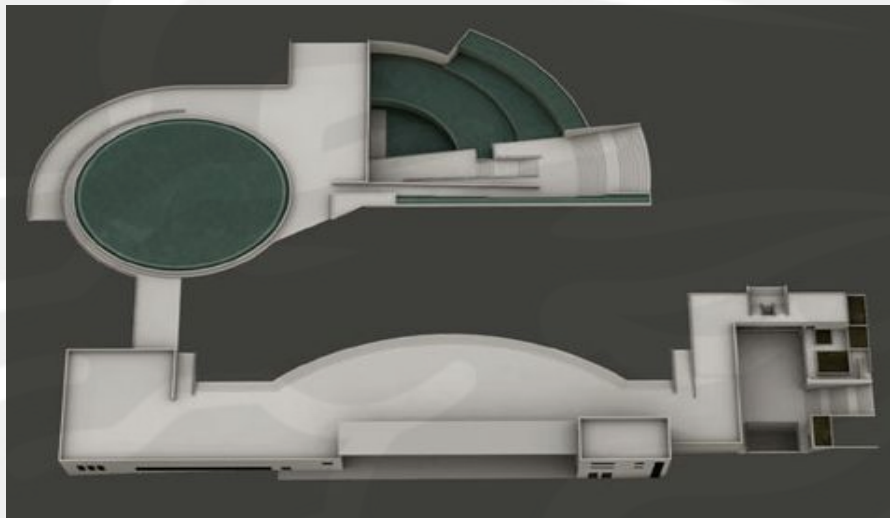
건물의 배치는 배산임수의 원칙을 따르는 것인데 지형은 평지 지형과 산지 지형이 있는데 산지 지형에서는 가장 좋은 배치방법은 배산임수로 배치하는 방법이다. 배산임수란 문자 그대로 산을 등지고 물이 있는 쪽을 향해 건물을 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지면에서 약간이라도 높은 부분에 건물을 짓고 지대가 낮은 쪽에 마당을 두어 내려다보게 하는 배치다.

이러한 협곡에서는 배산임수의 원칙을 논할 수 없다.

다만 대기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비보 방법이 필요하다.

항상 건물은 균형, 조화, 안정이 풍수에서의 기본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물이 산 중심과 일치되도록 그 좌우에 부속건물을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위의 조감도와 같이 지세에 맞지 않는 즉 배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각개 분산형을 설치되어 문제점이 많은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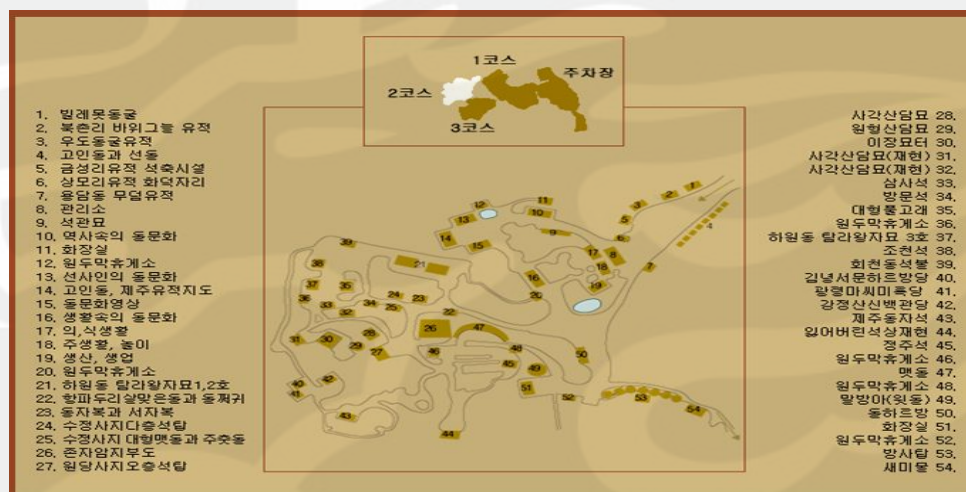
<사진4-3> 북측방향에서 본 돌 박물관



<사진4-4> 제주돌문화공원 전경

2) 제2코스: 돌문화 전시관 구역

선사시대의 돌문화를 시작으로 초가형 돌문화전시관 8동,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의 돌문화, 제주의 신앙, 동자석, 돌하르방, 정주석 등의 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돌문화공원 1단계를 크게 나누면 실내전시와 야외전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약 15만평 규모의 돌문화공원 1단계는 90%의 공간이 모두 야외 전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림4-4> 2코스 배치도

제주도의 생활문화에 있어서 돌의 이용은 자연 생태적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정신적·물질적 문화를 형성한 중요한 자원이 되어왔고 그 기능과 역할도 다양하다.

돌문화 야외 전시장은 선사시대로부터 현대까지의 제주도의 전반적인 돌문화를 집대성한 곳으로, 돌문화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성되고 있다.

또한 돌의 이용과 기능을 통하여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제주도의
특색있는 생활문화를 파악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귀중한 생활문화를
보존·관리하여 제주인들의 생활문화의 우수성을 드높이고 지역문화에 대
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아울러 관광산업에 이바지 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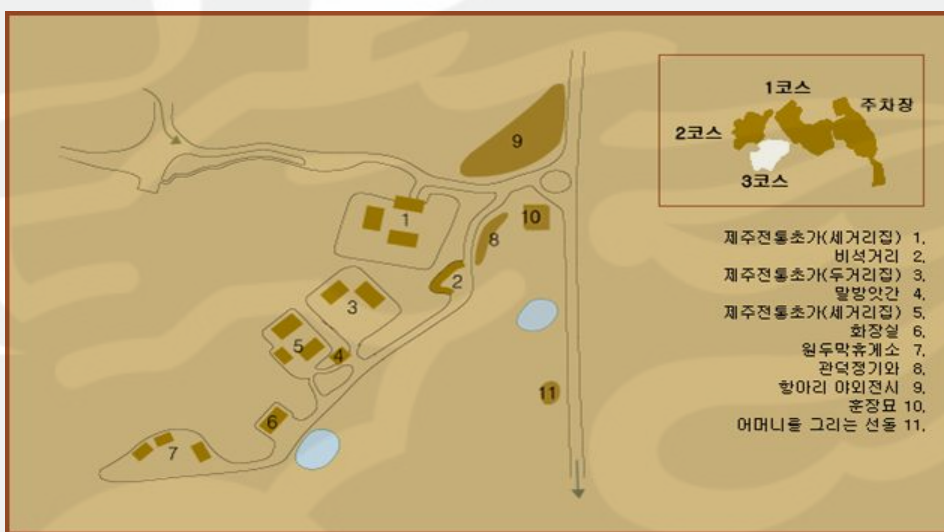
산의 형태를 축소하면 지붕의 형태가 되는 것처럼 산세를 중심으로 배산
이 되었으며 초가 지붕의 둥근형태로 주위에 건물들을 부드럽게 감싸안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며 편안한 마음으로 한눈에 보아도 명당형태로 보인
다. 멀리서 보면 바농오름 아래 하나의 마을을 본듯 포근한 분위기를 느
낄 수 있다. 이곳에서의 용의 행도는 행룡하는 내용이 머물러야 혈이 형
성되는데 과룡 형태를 이루면서 혈을 맺지 못하고 산수동거(山水同居)하
고 있어 혈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사진4-5>돌문화 전시관

3) 제3코스: 전통초가 재현 구역

제주의 옛 마을을 본따 돌은 흙의 뼈요, 흙은 돌의 살이라고 할 수 있다. 12월이 되면 들판에서 누렇게 익은 '새'를 베어 낸 짧은 '각단'으로 줄을 엮어 해마다 지붕을 덮는 것이 제주 초가 지붕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이 곳은 세거리집,, 두거리집, 말방앗간, 등이 배치되어 있다.



<그림4-5 >제3코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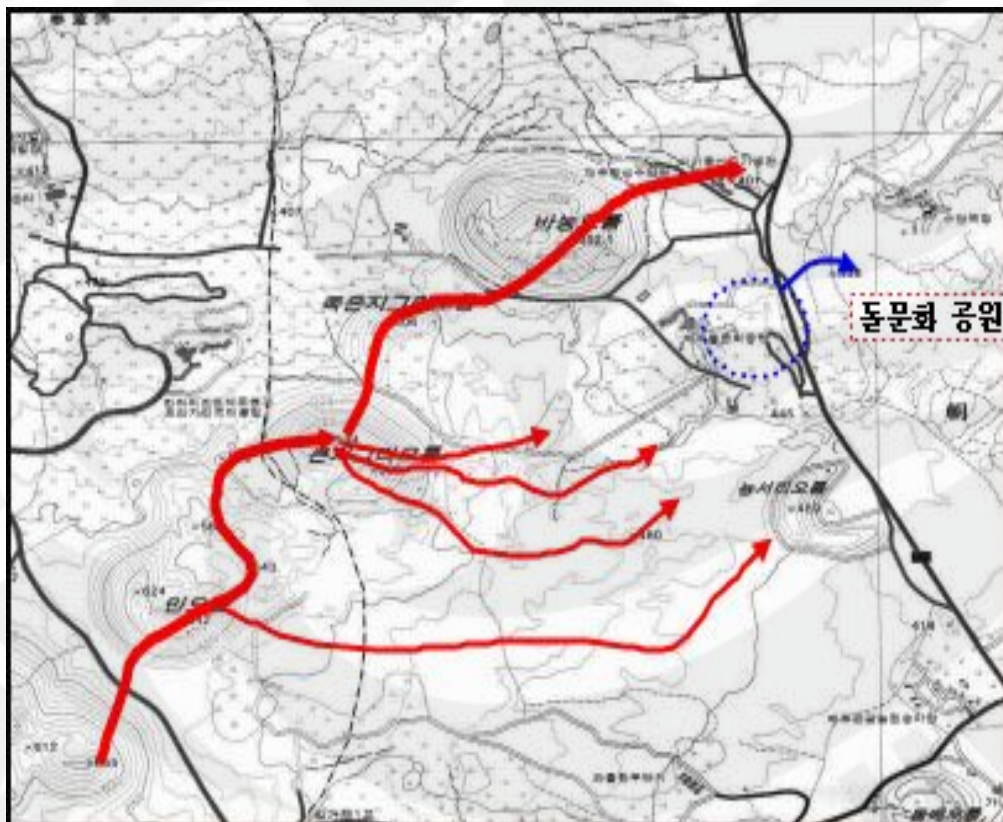
풍수로 보아 좋은 재료는 사람에게 따뜻한 감을 주는 목재나 흙이다. 여기 제주의 옛 마을을 본따 만든 초가형 주택은 그야말로 목재나 흙으로 만든 전통적인 가옥들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배산을 이루며 마치 사신사를 갖춘 형국처럼 안정된 초가 형태이며 공간구성이 아주 잘 되어있다.

양택풍수에서는 안산을 중요시 하는데 앞이 물이 한꺼번에 빠지는 지세를 하고 있어 결코 풍수적으로 명당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곳에 배치하고 있다

3. 제주 돌문화공원의 입지에 대한 풍수지리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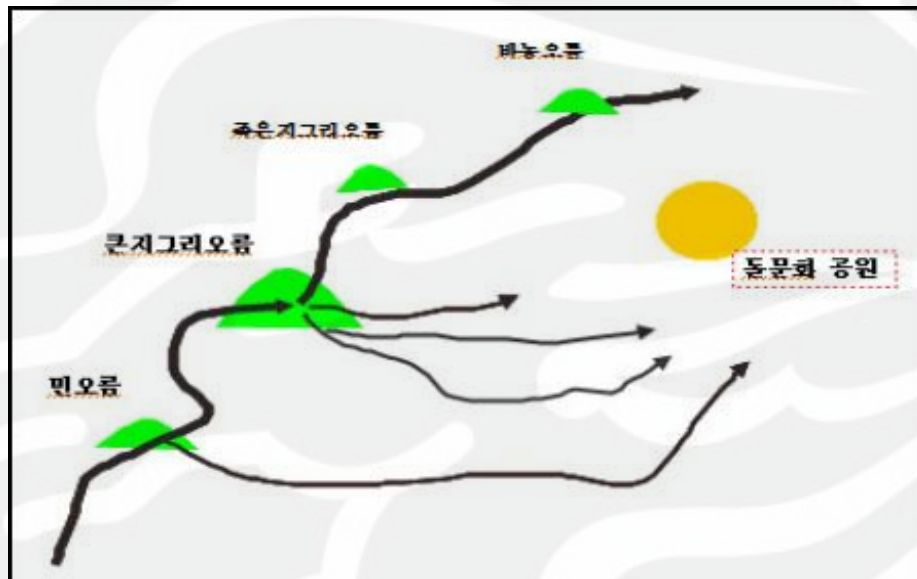
1) 간룡분석(看龍分析)

한라산에서 북동 방향으로 내려 흙붉은오름(土赤岳)에 이르고 흙붉은오름에서 동북방향으로 흘러 불칸디오름에 이르고 불칸디오름에서 동북방향으로 내려 살손장오리로 내리고 살손장오리에서 개월이오름(犬月岳)으로 내리고 개월이오름에서 좌선하여 절물오름으로 내린 다음 동북 방향으로 전진하여 민오름에 이르고 민오름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산세는 북쪽으로 좌선하여 돌문화공원에 이른다. 민오름에서 북쪽으로 좌선하는 형태는 말물자(勿) 형태로 돌면서 북향하고 있다.



<그림4-6> 제주 돌문화 공원의 내용분석도

이곳에서의 용의 행도는 행룡하는 내용이 머물러야 혈이 형성되는데 과룡 형태를 이루면서 혈을 맺지 못하고 산수동거(山水同居)하고 있어 혈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림4-7> 간룡분석(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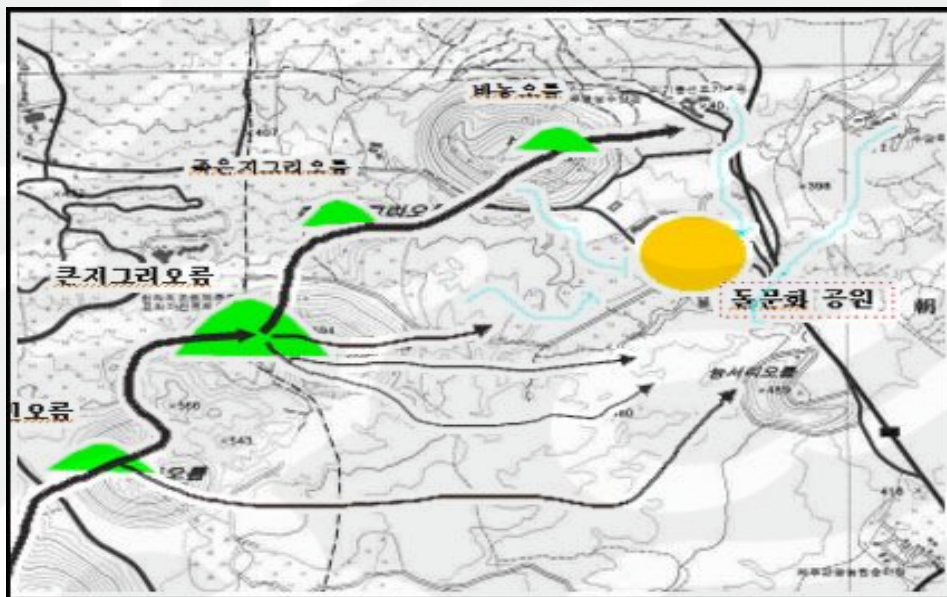
2) 장풍분석(藏風分析)

장풍은 혈장 및 명당지역의 사신사(四神砂), 곧 좌청룡, 우백호, 전주작, 북현무 네 개의 산을 살피는 것인데 사신사의 기능은 주룡에 있는 혈에 생기를 만드는 것으로 혈이나 명당에 생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신사의 바람막이 기능과 곡면 반사경 기능, 볼록렌즈기능 등에 의한 생기의 생산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돌문화공원은 청룡 백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불안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서쪽에 큰지그리오름과 작은지그리오름, 북쪽에 바논오름,

남쪽에 능서오름, 동쪽으로는 능서오름에서 샘이오름 방향으로 흐르는 산줄기가 있어 마치 큰지그리오름은 안산, 바농오름은 백호, 능서오름은 청룡, 능서오름에서 샘이오름 방향으로 흐르는 산줄기는 안산을 이루는 것과 같이 보이나 정혈이 되려면 산수가 음양배합이 되어 서로 교차하여야 하는데 모든 산줄기는 산수동거를 이루고 있어 정혈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그림4-8> 장풍분석

3) 득수분석(得水分析)

물의 모양새에 따라 길수와 흉수로 나눌수 있는데, 길한 수세의 종류는 다섯가지로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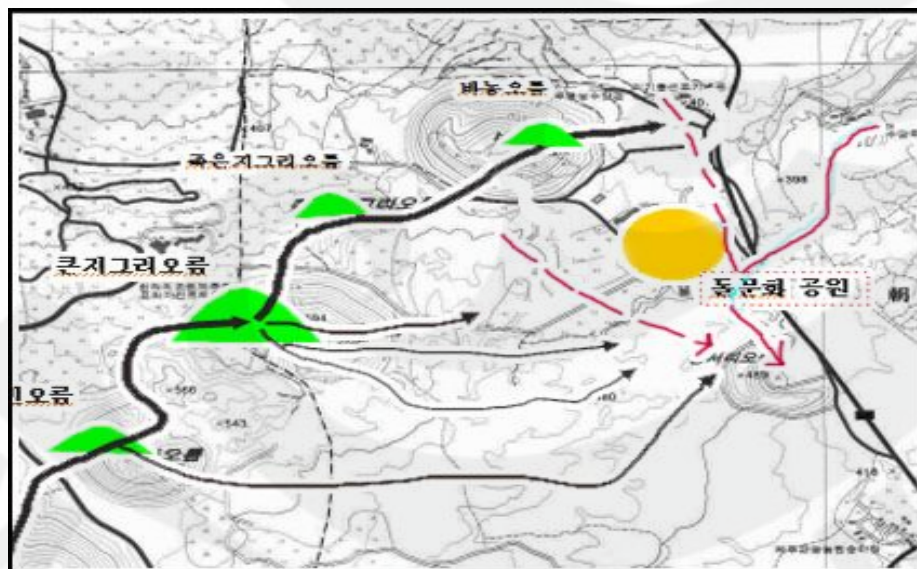
첫째는 내수로 혈을 향해 들어오는 물을 말하는데 구곡지현의 모양으로, 구불구불 굴곡하고 느릿하면서도 유유히 들어와야 한다.

둘째는 횡수(橫水)로 용혈과 명당을 횡류하는 물로, 용혈을 반궁역류(反弓

逆流) 하거나 깊고 맑은 물이, 용혈을 다정하게 감싸주듯 휘돌아 흐르는 물이 길격 형세이다.

셋째는 거수(去水)로 명당수가 당외로 흘러나가는 물을 말하는데, 거수 직거하지 않고 머뭇거리면서 서서히 흘러 나가는 물이 길격 형상이다.

넷째는 지호수(池湖水)로 혈이나 명당 앞에 고여 있는 물을 말하는데, 지호수는 일명 지당수(池塘水) 라고도 하고, 지호수의 형성은 혈 주변의 모든 물이 이곳으로 모여드는 경우도 있고, 용맥의 생기를 보호 하면서 땅 속으로 따라온 물이 혈 앞에서 흡수하여 지상으로 용출된 샘물 도 있다. 이는 항상 맑고 깊고 깨끗한 물이 넘쳐 흘러야 길격의 지호수가 된다. 마지막으로 융취수(融聚水)로 취면수(聚面水)라고도 하는데, 설심부에 “수취천심자연이득부귀 (水聚天心 自然而得富貴) 물이 천심(명당)에 모이면 부귀를 자연스럽게 얻는다라고 하였으며, 옛글에서 수취천심(水聚天心)이면 수지기부귀(水知其富貴)”라 하여 “물이 명당 가운데에 모이면 누가 그 부귀를 알것인가라고 표현 하였다.



<그림4-9> 득수분석

위의 맥락에서 돌문화공원의 수세에 의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산수동거 지역에서는 물이 흐르는 방향은 산이 높고 낮음과 직접 관련되고 산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경사를 이루듯 물의 흐름도 산의 경사도와 일치하게 된다. 또한 계곡에서 흐르는 물의 형태로 본다면 양쪽 계곡의 경사와 중앙에서 흐르는 물의 방향이 같은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곳에서는 결코 명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산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흘러 서로 부딪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명당은 산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서로 부딪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만 가능하다.⁴⁵⁾ 그러므로 돌문화공원은 파구에 형태를 보이고 있다

4. 제주 돌문화공원의 공간구성에 대한 풍수지리

1) 돌 박물관 구역의 풍수 분석

건물의 배치는 배산임수의 원칙을 따르는 것인데 지형은 평지 지형과 산지 지형이 있는데 산지 지형에서는 가장 좋은 배치방법은 배산임수로 배치하는 방법이다. 배산임수란 문자 그대로 산을 등지고 물이 잇는 쪽을 향해 건물을 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지면에서 약간이라도 높은 부분에 건물을 짓고 지대가 낮은 쪽에 마당을 두어 내려다보게 하는 배치다.

이러한 협곡에서는 배산임수의 원칙을 논할 수 없다. 다만 대기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비보 방법이 필요하다.

항상 건물은 균형, 안정, 조화가 풍수에서의 기본이다.

45) 박시익, 전개서, p96

그리고 중요한 건물이 산 중심과 일치되도록 그 좌우에 부속건물을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위의 조감도와 같이 지세에 맞지 않는 즉 배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각개 분산형으로 설치되어 문제점이 많은 형태이다.



<그림4-10> 돌박물관 배치도



<사진4-6> 돌박물관 전경

(가) 돌박물관 풍수적 비보

비보는 한국 풍수의 가장 큰 특징중 하나로 허(虛)한 곳을 보(補)하고 실(實)한 곳은 사(瀉)하는 한의학(韓醫學)의 침구법과도 그 맥을 같이하는 법이며 산천(山川)이 살아있는 유기체로 인식하는 정신에서 출발한다.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 비보법은 나무를 심어 숲을 가꾸는 것이고, 그 다음이 조산(造山)을 쌓거나, 탑이나 절을 세우는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하늘 못 북측 계곡에 을진방으로 바람이 강하게 진입하므로 돌박물관 북동 인방에 비보숲을 설치하여 바람의 유속을 조절하여야 한다. 사진에서와 같이 협곡 속에 위치하고 외형으로는 산을 의지한 배산

형태로 보이나 실제로는 건물이 남측 능선을 의지하여 북측에 공간을 땀으로써 바람이 진입할 경우 유속을 가속시키게 된다.

또한 돌박물관 주위의 모든 물은 돌박물관이 위치한 곳으로 유입되어 항상 습한 지형을 이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건물의 형태 또한 지세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ㄷ자 형태를 이루어 건물내의 기를 분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식물을 활용한 풍수인테리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진4-7> 비보 숲 설치 위치

2) 돌문화 전시관 구역의 풍수분석

제주돌 전시관은 8동의 건물이 각 주제별로 구분하여 의·식·주, 생산·생업, 놀이 등과 관련된 유물들을 전시하였으며, 역사 속의 돌문화 연표와 제주의 돌문화를 기능별로 나눠 정리한 도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여러 동 들어설 경우에는 중요한 건물이 중심에 위치하여 주산(현무봉)에 배산을 하고 좌우에 부속건물은 배치함으로써 주변의 자연과 돌전시관 공간배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 돌전시관이 생기를 받기 위해서는 산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서로 교세하여 생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곳에 입지하여야 한다.

현 위치는 한꺼번에 물이 빠지는 현상을 그대로 보이고 있어 비 혈지의 형국을 하고 있다.

비 혈처에 명당이 있는 것처럼 돌전시관은 큰지그리오름이 배산을 하므로써 청룡은 작은지오름으로 감싸주며 안산은 금형체인 바능오름을 향하며 백호는 물을 거두어 주는 득수 형국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돌전시관이 위의 설명에 따른 배치 형국이면 금상천하인데 휴게실 건물이 비 혈지인 제주 돌전시관의 비보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4-8> 제주돌 전시장(다음항공)



<사진4-9> 제주 전시장 건물의 배치형태

3) 전통초가집 구역의 풍수분석

(가)제주 초가 (세커리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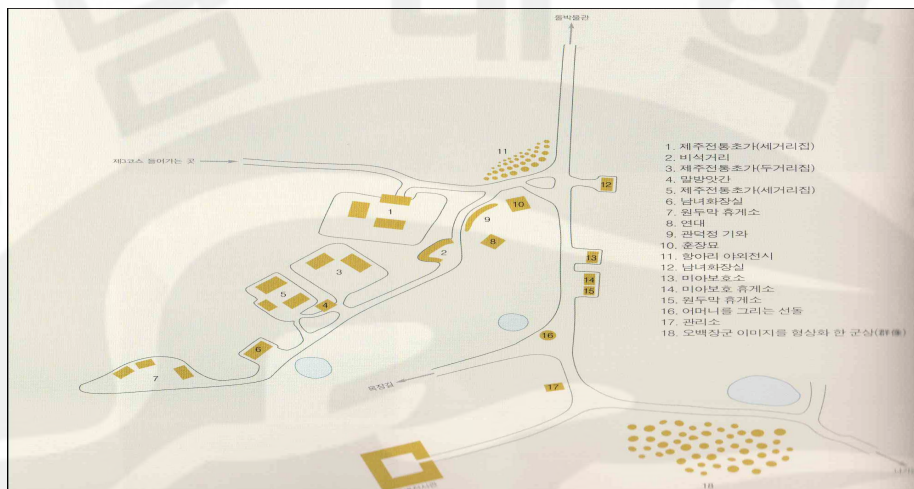
미좌 측향으로 배치하여 남측에 위치한 안거리는 우측에서 굴목, 큰방, 작은방, 정지(부엌) 순으로 방을 배치하였고 안커리 밖거리를 배치하였다. 미좌 서사택 건물에 측방에 대문을 설치하고 곤방에 부엌을 설치하여 동서사택 배합 형식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제주 전통초가 재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형, 지세와 일치시키는 것이다. 제주도는 강수량은 많고 76%가 산지로 구성 되어 있으므로 비가 올 경우는 많은 양의 물이 일시에 합수되어 내리기 때문에 지형조건에 부합된 건축을 하지 않으면 수해로 인한 재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계로 제주지형의 건축은 방위 개념보다도 배산임수의 원칙을 지켜야하는 이유이다.

본 초가 건물에 있어서는 초가 뒤 내룽 부분이 재현되지 않고 오히려 배수로로 조성하였다. 이 배수로는 이 초가 건물이 재현된 장소가 지기가 없는 물길에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배수로로 조성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되고 이 배수로를 초가 건물 좌측으로 돌려 지하로 매설하고 현재의 배수로에는 흙을 쌓아 내룽을 재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림4-11> 전통초가 배치도



<사진4-10> 세거리집

다음에 장독대의 위치인데 장독대는 일반적으로 제주전통초가에 있어서
는 초가집 뒤에 설치하는 것이 통례인데 주 건물(안거리)의 우측에 설
치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 건물 뒤에 내용을 재현하고 이 두둑 위에 장
독대를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장독대는 간장과 된장을 보관하는 시설로 한가족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시설이므로 집 뒤 편안하고 가장 환경이 좋은 곳에 설치를 하였던 것이며
장 담그기는 일 년 동안의 음식 맛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일로 주부로
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일이라 생각하였으므로 주부로서는 온갖 정성을 다
하여 장맛이 좋기를 마음으로 빌며 장 담그는 일을 하였던 것이다.⁴⁶⁾

한편 주 건물 우측에는 소·말 등 가축의 먹이를 위하여 가을에 건초를 베
어 말린 출눌⁴⁷⁾을 조성하여 마당을 □ 형으로 조성하는데 본 건물에서는
밖거리 서측에 설치하여 □ 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마당을 □형으로 조성하는 것은 마당에 청정한 기가 흐르도록 한 풍수
지리적 관점이 도입된 것이라 생각한다.

(나) 전통초가(두거리집)

간좌곤향 배치 되었는데 배산임수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 제주전통 가옥
을 재현함에 적절하지 않고 커다란 연못을 굴착한 것은 제주 지역가옥 구
조와는 다른 형식이며 풍수지리의 원리를 적용하여 을좌 신향으로 건물을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두거리집도 위 세거리집과 같이 장독대 시설이나 출눌 등을 설치하여

46) 「동명향토지」, 2009 p491

47) 제주도에서는 출이라고 불려지는데 자골 등 건초를 말려 마당 옆에 쌓아 저장하였는데
이것을 출눌이라 하였다. 출물 위는 느람지라 물리는 띠를 역어 만든 것을 덮어서 줄로 단
단히 동여매었다.

□형으로 만든 것은 동일하다. 그리고 제주 전통초가 벽은 모두 돌로 쌓았는데 이 돌의 형태에서는 매우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돌은 굵은 돌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돌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으며 외부벽을 위 사진 과 같이 흠질하지 않고 돌을 쌓을 때 틈에만 흙을 넣은 경우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고유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적용되었다.



<사진4-11> 두커리집

4) 야외공연장의 풍수지리

야외 공연장은 돌박물관 위에 설치되어있는데 북측에 있는 바농오름과 공연장 무대방향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불안정한 형태로 보였다.



<사진4-12> 야외공연장-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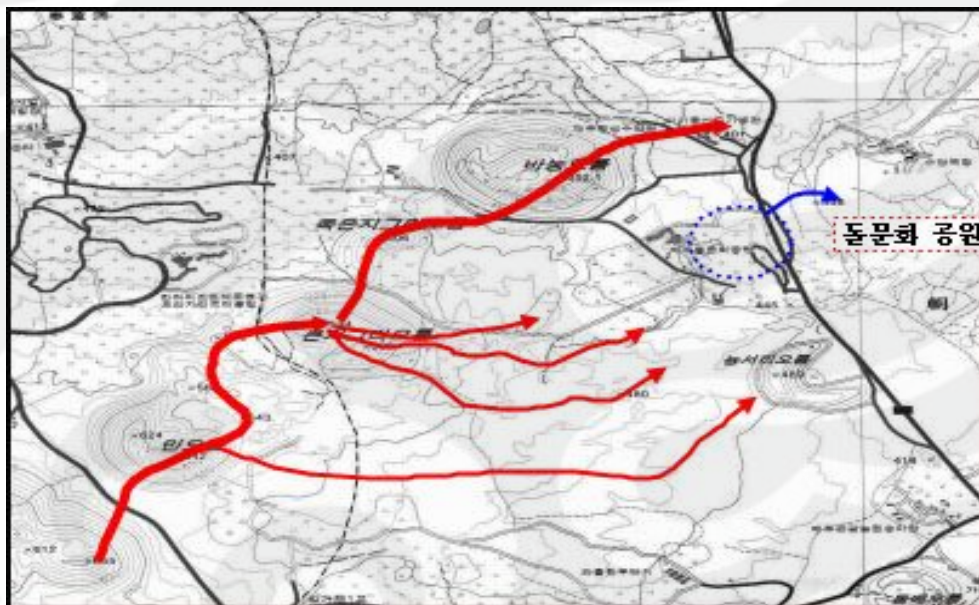
<사진4-13> 야외공연장-2

야외무대의 중심선이 바놓오름 중심선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빗나간 좌우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무대 차양 시설이 모난 각을 이루어 주위 산세와 어울리지 않으며 돌박물관을 협곡에 배치하여 시설물 주위의 자연과 일치시키려는 목적도 상실 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야외무대 좌측 건물의 모습은 철근 구멍으로 디자인하여 오히려 공사 중인 건물로 보이고 있어 관람객들에게는 흉물로 보일 가능성이 크며 너무 모나게 형성되어 있어 산과 주위의 시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혹시 산의 모습이 원형을 이루고 있으니 그와 대조를 이루도록 사각형으로 설계할 경우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인공시설물 내에서는 그러한 방법도 조화를 이룰 수 있지만 자연 적인 산과의 관계에서는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각형 모양이 시설물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집이나 점포 같은 건물을 지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건물이 자연의 기운을 많이 받아들이도록 배치해야 한다. 이러한 배치 방법은 각 지세를 따라 배치하는 방법으로 배산임수 · 일조 · 도로 · 건물과 내륙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또한 계곡에서 흐르는 물의 형태로 본다면 양쪽 계곡의 경사와 중앙에서 흐르는 물의 방향이 같은 지세에서는 청룡과 백호, 안산, 사신사가 없는 형국이므로 결국 명당의 기가 생기지 않는다

이것은, 산의 (음)기운과 물(양)의 기운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흘러 생기를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명당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림5-2>돌문화공원 지세분석

현재의 제주 돌문화공원의 주 건물은 돌 박물관인데, 주 건물은 주산의 기를 받기 위해 배산임수를 하여야 하는데, 이곳은 협곡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생기가 머물지 못하는 비혈처에 입지하는 풍수적 결함을 앞의 장에서 밝혔다.

따라서 풍수지리적 재 구성의 의미는 차후의 제주 돌문화공원 새로운 건축물의 입지 및 공간구성에 대하여서는 풍수지리적 재 구성을 바탕으로 건축하는 것을 가정하여 주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현재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풍수적 결함을 비보함으로써 현재보다 좋은 생기를 보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제주 돌문화공원의 공간구성에 대한 풍수지리적 분석에 따른 재 구성을 살펴보면, 첫째는 바농오름을 주산으로 공간구성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작은지 오름을 주산으로 공간구성을 하는 것이고, 셋째는 큰지 오름을 주산으로 공간구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구성에 대한 풍수지리적 분석을 간룡법과 장풍법, 득수법을 적용하여 주 건물의 입지가 생기가 머무른 곳에 공간구성이 되어야 한다.

즉, 제주 돌문화공원의 산세는 한라산을 태조산으로 하여 민오름을 거쳐 큰지오름과 작은지오름을 지나 바농오름으로 행룡을 하는 형국으로 대체적으로 남서 방향에서 북동방향으로 지맥이 뻗어가고 있으므로, 주 건물의 입지는 산세 흐름의 방향과 가장 강하게 산의 정기를 받을 수 있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형국을 하여 생기맥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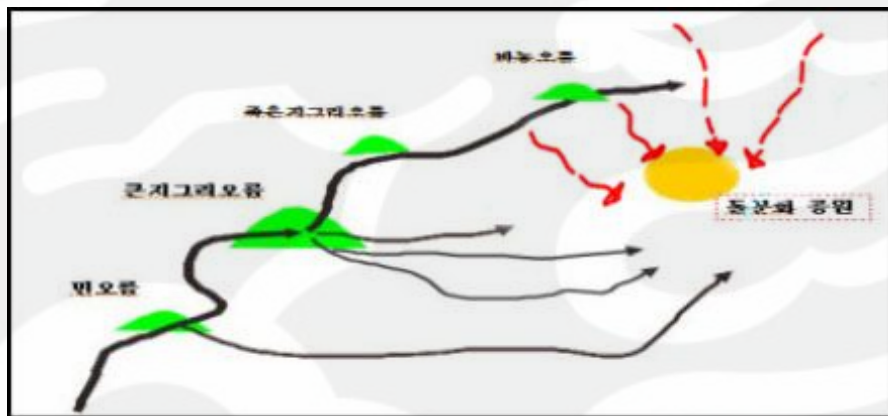
그러므로 제주 돌문화공원내의 명당 지세가 갖는 입지 및 공간구성에 적합한 명당터를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 돌문화공원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대해 우리의 전통지리사상인 풍수지리학을 토대로 적용 여부를 분석함으로써, 이번 연구 조사가 제주도 문화관광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제주 돌문화공원을 재조명하고 보다 나은 전통적인 제주문화관광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기를 바라는 바가 즉, 풍수지리적 재구성의 의의를 갖는 것이라 생각된다.

2. 배산 유형에 따른 풍수적 분석

1) 바농오름 공간구성의 배산

가) 간룡 분석

태조산인 한라산에서 북동 방향으로 내룡하여 흙붉은오름(토적악)을 기봉하고 다시 가지를 뺀 불칸디오름, 개월이오름(복월악)으로 행룡하면서 절물오름(698m)에서 숨을 고른 후 주산인 민오름(648m)을 세우고 동북방향으로 좌선하면서 큰지오름(596m)을 제1기봉하고, 작은지오름(506m)을 제2기봉한 후 마지막으로 바농오름(552m)을 세우면서 제주 돌문화공원에



<그림5-3> 바농오름 배산 모식도



<사진5-1> 바농오름 건물의 배치형태

이른다. 바농오름은 금형체의 현무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의 형태에서 주인격에 해당하며 오행으로는 재물을 상징 한다.

그러나 바농오름은 북방으로 지맥이 뻗어나가고 있는 지세로서, 주 건물을 입지하였을 때 안산의 조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의 조응도 없고 기가 형성되지 않는 입지로 주산의 역할이 이루어질 수 없다.

나) 장풍 분석

바농오름을 돌문화공원의 현무봉으로 배산을 하면 우선 좌청룡, 우백호, 안산이 없는 형국으로 주 건물의 입지에 있어서 사신사에 의한 생기를 반사 기능, 조응기능, 불록렌즈 기능을 하지 못하고, 현무봉의 좌우 서북방의 허한 곳에서 불어오는 살풍으로 기가 흩어지는 입지형국이다.

다) 득수 분석

현무봉이 주산의 역할을 하면 좋은 생기가 주 건물에 발현하면서 그 여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좌청룡, 우백호, 안산에서 득수한 물이 명당터에 진응하도록 하는 형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바농오름을 현무봉으로 주 건물을 배산하면 안산이 조응하지 않아 거수를 받을 수 없고, 좌,우의 사가 없어 현무봉에서 득수한 물이 빠져나가므로 계수즉지에 의한 생기를 머무를 수가 없다.

즉 산의 기운(음)과 물의 기운(양)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흘러 서로 부딪치지 못하여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형국입지이다.

따라서 바농오름을 현무봉으로 주 건물의 공간구성에 대한 풍수적 재구성을 분석하면, 현무봉의 마주보는 안산이 없어 생기를 조응하는 주산역할을 하지 못하고 좌우 사신사를 갖추지 못해 바람길에 의한 조응, 반사, 불록기능

에 의한 생기를 머물게 할 수 없었고, 또한 득수가 산수동거로 파구가 보이는 입지형국으로 주건물의 배산이 되었을 때 생기가 빠져나가는 형국으로 명당국세가 될 수가 없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계곡에서 흐르는 물의 형태로 본다면 양쪽 계곡의 경사와 중앙에서 흐르는 물의 방향이 같은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곳에서는 결코 명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산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흘러 서로 부딪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명당은 산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서로 부딪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만 가능하다.⁴⁸⁾

또한 바농오름은 북방으로 회전하여 나가는 산으로 돌박물관 위치에서나 재구성을 위한 주 건물의 위치에서 보아도 배면을 이룬 산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바농오름을 배산으로 하여 남으로 주 건물을 배치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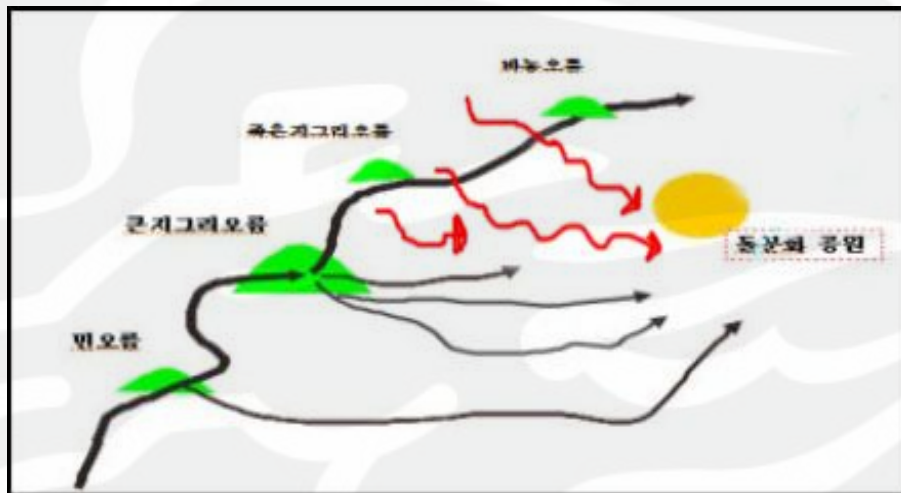
2) 작은지오름 공간구성의 배산

가) 간룡 분석

태조산인 한라산에서 북동 방향으로 내룡하여 흙붉은오름(토적악)을 기봉하고 다시 가지를 뺀 불칸디오름, 개월이오름(북월악)으로 행룡하면서 절물오름(698m)에서 숨을 고른 후 주산인 민오름(648m)을 세우고 동북방향으로 좌선하면서 큰지오름(596m)을 제1기봉하고, 작은지오름(506m)을 제2기봉한 후 마지막으로 바농오름(552m)을 세우면서 제주 돌문화공원에 이른다.

48) 박시익, 전개서, p96

작은지 오름은 수형체의 현무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의 형태에서는 보조격으로 산의 정상부가 잘록해서 기운이 한 지점에 모이지 않고 분산되는 것으로 본다.



<그림5-4> 작은지오름 모식도



<사진5-2> 작은지오름배산 건물배치 형태

그러나 작은지 오름은 주산인 민오름이 가지를 뺀어 내뿜하면서 큰오름을 기봉하면서 바농오름으로 좌선하여 흘러가는 과맥처가 되어 생기가 머물지 못하고 흘러가는 현무봉을 하고 있다.

작은지 오름 역시 바농오름과 마찬가지로 주 건물을 배산 하였을 때, 안산에 의한 조움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주산에서의 생기맥이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주산으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다.

나) 장풍 분석

먼저 작은지 오름이 돌문화공원의 현무봉으로 배산을 하면, 좌측의 바농오름과 우측의 큰지오름이 좌우 사신사 역할을 하는 형국으로 볼수 있지만,

그것은 과맥처로서 좌우의 사신사를 호송할 수 있는 역량이 될 수가 없다.

또한 좌청룡의 바농오름은 비주하는 지세를 하고 있어 서북방향의 허한 제주의 바닷바람을 막을 수가 없어 명당처의 생기가 흩어지는 입지형국이다.

사신사가 혈을 향하여 삼태기 처럼 둘러싸인 곳은 장풍기능을 하여, 강한 바람을 순하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지만 작은지 오름을 현무봉으로 주 건물이 배산을 하면 청룡, 백호가 배반하는 지세이므로 바람을 가속시켜 강한 바람이 되어 명당의 생기를 빼앗아 가는 입지형국을 띠고 있다.

다) 득수 분석

작은지 오름을 주산의 현무봉으로 하고 주건물을 배산하였을 때, 바농오름과 큰지오름에서 발원하는 득수가 명당처에 모이는 진응수가 되기 위한 형국으로는 좌우측의 사신사가 교쇄하거나 역수를 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안산이 없어 명당터의 생기가 설기되지 않게 거수하는 국면을 형성되지 않았고, 그러므로 풍수에서는 '수관재물'이라 재물을 가두지 못하고 물이 빠져나가는 형국이 되는데, 이러한 국면은 제주 돌문화공원의 관광문화사

업 수익성에 나빠지는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풍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작은지오름을 현무봉으로 주 건물의 공간구성에 대한 풍수적 재구성을 분석하면, 현무봉의 마주보는 안산이 없어 생기를 조음하는 주산역할을 하지 못하고 좌우의 오름이 사신사의 역할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비주하는 국면으로 바람길에 의한 조음, 반사, 볼록기능에 의한 생기를 머물게 할 수 없다. 또한 좌우의 사신사에 의한 득수를 거수하거나 교쇄가 되지 않는 산수동거의 형국을 하고 있어 파구가 보이는 입지형국으로 되어 있다.

또한 좌우의 허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바람은 명당처의 기를 흩어버리는 국면을 하고 있으므로, 작은지 오름을 주건물의 배산이 되었을 때 장풍국과 득수국, 간룡에 의한 모든 생기가 빠져나가는 형국으로 풍수의 재구성에 따른 명당국세가 될 수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큰지그리오름 공간구성의 배산

가) 간룡 분석

태조산인 한라산에서 북동 방향으로 내룡하여 흙붉은오름(토적악)을 기봉하고 다시 가지를 뺏어 불칸디오름, 개월이오름(북월악)으로 행룡하면서 절물오름(698m)에서 숨을 고른 후 주산인 민오름(648m)을 세우고 동북방향으로 좌선하면서 큰지오름(596m)을 제1기봉하고, 작은지오름(506m)을 제2기봉한 후 마지막으로 바농오름(552m)을 세우면서 제주 돌문화공원에 이른다.

큰지오름은 금형체의 현무봉을 하고 있는데, 산의 형태로는 주인격으로 오행으로는 재물을 상징한다. 한라산을 태조산으로 출맥하여 위이, 기복과 과협

과 봉요를 박환하면서 생룡으로 뻗어오다가 민오름에서 주산을 만들었다.

주산인 민오름에서 제1봉을 현무수두하여 생기맥이 응집된 주봉을 배산으로 주 건물을 공간구성을 하였을 때, 큰지오름은 현무가 되고 작은지 오름은 좌청룡이 되며, 선돌과 휴게소가 있는 방향의 바농오름은 안산을 이루게 되어 산세의 흐름과 일치하고 안정감을 준다.



<그림5-5> 큰지그리 오름 배산 모식도



<사진5-3> 큰지그리오름 건물배치 형태

아울러 바농오름과 비보숲이 능서오름과 조화를 이루어 천심십도의 정혈의 명당터에 입지함으로써, 주 건물에 강한 지기를 받아 새롭게 제주 돌문화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장풍 분석

풍수지리에서 사신사는 명당터의 천기를 조용하고, 지기를 흠어지지 않도록 藏風을 하여 자연과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길 수 있는 기능을 한다.

큰지오름이 배산을 하였을 때, 청룡인 작은지 오름은 관직과 명예를 상징하는 것으로 돌문화의 위상을 널리 펼치는 명예를 얻고, 서북(건방)에서 불어오는 골바람을 막아주어 명당처의 생기가 흠어지지 않고 머물도록 장풍 역할을 한다. 금형체(金型體)의 案山은 五行의 기운에서 부를 상징하는 氣로 명당처의 生氣를 밝게 반사하고 조용하여 제주 돌문화공원의 문화관광 발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명당의 기운을 발산하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양기풍수에서 제일 중요한 큰지오름을 背山臨水로 주 건물의 입지 및 공간구성은 안산(바농오름)을 맞이하여 음양조화를 이루었다. 또한 큰오름의 우선으로 뻗어내린 지맥인 하수사에 의해서 前低後高와 전착후관의 명당국면을 이루었다.

다) 득수 분석

득수에 있어서는 청룡인 작은지 오름과 안산인 바농오름에서 발원 하였다. 큰지오름에서 배산임수를 하면 동출서류로 명당처에 임하면서 안산을 사이에 두고 去水하면서 흘러가는데, 길수인 지호수 명당을 이루어 생기가 모이게 된다. ‘수관재물’인 물을 건어주는 하수사의 지맥이 득수 명당국을 형성하여 현 돌문화 건물을 멀리서 환포하고 있는 지세로 비보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건물의 지세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된다.

이와 같은 풍수지리적 국세는 배산 유형에 따른 풍수지리적 재 구성에 있어서 작은지 오름과 바농오름 보다 좋은 명당국면을 하고 있다.

차후의 돌문화공원 건물들이 입지 및 공간 배치시에는 큰지그리오름을 현 무봉으로 배산임수 함으로써, 작은지오름이 청룡국을 이루고 바농오름이 금형체의 안산을 이루는 형국으로 입지를 하여야 명당기운을 받으며 풍수지리에서 청룡은 관직과 명예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돌문화공원의 위상을 널리 펼치는 명예를 얻을 것으로 간주한다.

위와 같은 풍수지리적 국세는 앞으로의 돌문화공원의 운영에도 생기가 충만될 질것으로 기대되고, 자연과 풍수지리와의 조화와 균형을 이룬 명당국이라 생각한다. 나아가 이번 연구를 통한 제주 돌문화공원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대해 우리의 전통지리사상인 풍수지리학을 토대로 재조명하여 보다 나은 제주문화관광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기를 바라면서, 차후에 제주 문화권의 개발시에는 전통적인 풍수지리학적 분석이 선행(先行)되기를 기대한다.

제6장 결 론

옛부터 제주도를 삼다도(三多: 돌, 바람, 여자)라 칭하였다.

고대에 우리 선인들이 돌을 생활 필수품으로 사용하여 왔고 신앙대상으로 삼았던 돌 문화에 대해 한라산을 중심으로 제주지역에 무한적으로 널려있는 돌문화를 수집하여 전시하고, 제주의 창조신인 설문대할망의 이미지를 형상화 하는 등 제주의 상징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문화관광자원을 콘텐츠화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세계 최초의 돌 문화공원이 2006년 6월에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서 탄생한 것이다.

당초 이렇게 훌륭한 목적을 갖고 출발한 돌문화공원이 40여명에 이르는 상주 인력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관람객의 방문이 극도로 저조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 돌문화공원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대해 우리의 전통지리사상인 풍수지리학을 토대로 분석하여, 돌문화 공원의 입지 및 공간구성에 따른 운영상의 영향이 있는지를 고찰하기 위함이 우선적이다.

그리고 앞으로 돌문화공원의 주요 건물에 대한 입지와 공간배치를 할때에는 자연적인 조화와 균형을 중요시 하는 풍수지리학적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제주 돌문화공원의 입지 분석에는 입지와 시설물의 계량화가 가능한 경험 과학적인 논리체계들인 간룡법, 장풍법, 득수법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룡분석은 명당 주위의 지형, 지세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입지장소를 찾기 위하여 거시적 조건을 이루는 산줄기의 분포와 규모를 살피는 것이다. 제주 돌문화공원은 제주도의 태조산인 한라산이 동북(간방)으로 내용을 하면서 크고 작은 오름들을 만들었고, 위이, 굴곡, 기복으로 행동

을 하다가 돌문화 공원의 주산인 민오름을 기봉한 후 잠시 숨을 고르다가, 다시 좌선릉으로 행룡하면서 큰지오름, 작은지오름, 반농오름의 현무봉을 세우면서 입지 하고 있다. 양기풍수에서는 태조산에서 뺀어내려 명당혈처에 이르기까지 단맥하지 않고 내용하여야 한다

즉 명당국면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산과 현무봉을 중심으로 생기 맥을 받는 혈처에 배산임수의 건물입지 및 배치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문화공원은 내용을 하여 명당국을 형성하였으나, <그림 4-7의 간룡분석도>에 의하면 3개의 현무봉을 모두 배산임수를 하지 않는 중앙의 허한 곳에 입지하고 있는 국면을 하고 있다.

따라서 풍수지리에서 중요시하는 것이 배산임수인데, 태조산으로부터 내용맥이 연결된 현무봉을 중심으로 배산임수 하지 않은 지금의 돌문화공원 건축물의 입지 및 배치는 명당처의 생기 맥을 받지 못하는 형국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장풍분석은 명당 주위의 산에 의해 바람을 막고, 혈장을 중심으로 지중에서 발생하는 생기를 흩어버리지 못하도록 좌,우,전,후의 사신사의 산세(山勢)에 의해 장풍(藏風)을 함으로써, 명당 주변의 산과 득수인 물(水)이 상보(相補)한 음양화합을 이루는 국면을 살피는 것이다.

제주 돌문화공원은 <그림4-8 장풍분석>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 건물의 기준으로 볼때 청룡과 백호가 사신사의 역할을 할 수 없는 형국이다.

그리고 주변의 3개의 오름들이 안산을 하고 있는 국면으로 비추어지나, 이것이 음양의 균형이 이루기 위해서는 명당에 물이 모여 드는 지호수(池湖水)의 수세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물의 입지 국면에서 빠져나가는 산수동거의 형국은 ‘계수즉지’에 의한 생기가 머무르는 지세를 하지 못하는 국면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득수분석 결과 명당 주변의 물의 형상을 총칭하는 것으로, 물은 산에 의한 득수와 파구가 이루어진다.

득수(得水)는 산과 물이 음양이 화(和)하고 회(會)하고 생기(生氣)가 있게 되어 길(吉)하므로 산수(山水)가 상보(相補)하여야 함이 풍수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제주 돌문화공원은 <그림4-9 득수분석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3개의 오름에서 득수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곳(건물)으로 흘러 내려와서 명당처에 모이는 길수(吉水)인 지호수(池湖水)가 되어야 하는데, 이곳은 멈추어 모이지 못하고 있다. 즉, 산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상보하지 못하여 명당처의 득수역할 못하였고, 또한 수관재물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파구의 형태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 생기가 머무를 수가 없다.. 따라서 “풍수의 술법은 득수함이 으뜸이요, 장풍이 다음이라 하였다” 풍수에서 물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득수하여 머물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것은 생기가 모이지 못하는 형국이라 결코 명당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으로 판단 되어 진다.

본 연구는 풍수지리적 재구성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 돌문화공원의 입지 및 공간구성에 관한 풍수지리적 분석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고자 한다.

<그림5-5> 큰지그리옴 배산 모식도(득수형명당) 에 나타난 결과에 보면 한라산에서 내뿜은 용맥은 민오름에서 주산을 기봉하였고, 다시 용맥이 뻗어 내려서 큰지그리옴 기봉하고 현무봉을 만들었다.

한라산(태조산)--민오름(주산)--큰지그리옴(현무봉)으로 내뿜하여 생기맥을 받는 명당국이 형성되어 경험과학적인 논리체계인 간룡법의 입지에 부합된다고 판단한다.

차후의 돌문화공원의 건물들이 입지 및 공간 배치시에는 큰지그리옴을 현무봉으로 배산임수 함으로써, 작은지옴이 청룡국을 이루고 바농오름이 금형체의 안산을 이루는 형국으로 입지를 하여야 명당기운을 받는다.

풍수지리에서 청룡은 관직과 명예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돌문화공원의 위상

을 널리 펼치는 명예를 얻고, 서북(건방)에서 불어오는 골바람을 막아주어 명당처의 생기가 흩어지지 않고 머무르게 장풍 역할을 한다.

금형체(金型體)의 안산(案山)은 오행(五行)의 기운(氣運)에서 부(富)를 상징하는 기로 명당처의 생기를 밝게 반사하고 조용하여 주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사신사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양기풍수에서 제일 중요한 현무봉(큰지오름)을 배산으로 한 건물의 입지 및 배치는 안산(바농오름)을 맞이하여 음양조화를 이루었고, 큰지그리오름의 오른쪽으로 뻗어내린 지맥인 하수(河水沙)에 의해 전저후고의 명당국면을 이루게 된다. 득수에 있어서는 청룡인 작은지 오름과 안산인 바농오름에서 득수하였다. 큰지오름에서 배면하면 동출서류로 명당처에 임하면서 안산을 사이에 두고 흘러 가는데, 길수인 지호수 명당을 이루어 생기가 모이게 된다. 수관재물인 물을 건어주는 하수사의 지맥이 현 건물을 멀리서 환포하고 있는 지세로 비보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건물의 지세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풍수지리적 국세는 앞으로의 돌문화공원의 운영에도 생기가 충만해 질것으로 기대되고, 자연과 풍수지리와의 조화와 균형을 이룬 명당국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제주 돌문화공원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대해 우리의 전통지리사상인 풍수지리학을 토대로 분석한 것으로서, 이번 연구 결과가 제주도 문화관광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아가 돌 문화공원을 재조명하여 보다 나은 전통적인 제주문화관광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기를 바라면서 차후에 제주 문화권의 개발시에는 전통적인 풍수지리학적 분석이 선행(先行)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1999, 일빛
- 김기선, 풍수실무편람, 2005, 형설출판사
- 풍수지리학개론, 2005, 형설출판사
- 신영대, 풍수지리학 원리, 2007, 경덕출판사
- 신 평, 풍수양택통론, 2006, 관음출판사
- 채성우 김두규, 명산론, 2002 비봉출판사
- 오상익, 주해장경, 2005, 동학사
- 이 한, 풍수지리학, 2000, 오성출판사
- 장영훈, 생활풍수강론, 2000, 기문당
-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1984, 민음사
- 최창조 역 청오경·금낭경 1993, 민음사
- 윤갑원, 정통통맥풍수지리, 2002, 지선당
- 노영준, 양택풍수, 2003, 경덕출판사
- 김동규, 인자수지, 2008, 명문당
- 김두규, 우리땅 우리 풍수, 2004, 동학사
- 명산록, 2004, 비봉출판사
- 김봉우, 증보제주통사, 2001, 도서출판 세림
- 고재희, 쉽게 하는 풍수 공부, 2004, 동학사
- 김종철, 명당요결, 2000, 오성출판사
- 정경연, 정통풍수지리, 2006, 평단문화사
- 강정식, 제주의 전설과 돌, 2006, 정음사
- 섭구승, 산법전서

이대우, 명당풍수와 조경수목, 2006 일진사
황화철, 비지니스 풍수, 2007. 대진,
김종철, 주택풍수 인테리어, 2003, 꿈이있는집,
신 명당요결, 2005, 꿈이있는집,
명당답산기, 2007, 행복을만드는세상,
김혜정, 중국고전의 풍수지리사상, 2008, 한국학술정보(주),
조인철, 부동산 생활풍수, 2008, 평단,
우리시대의 풍수, 2008, 민속원 ,
정경연, 부자되는 양택풍수, 2006, 평단,

인터넷 참고자료

http://www.in_sidejeju.com

<http://www.jejustonepark.com>

<http://www.local.daum.net>

학위논문

박시익, 풍수지리설 발생배경에 관한 분석 연구, 고려대박사학위논문1987
변창두, 제주도 지명 및 전설과 풍수지리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성대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김연호, 한국 전통 지리 사상 연구, 박사학위논문, 2008
박성혜, 풍수인테리어의 현대적 해석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위논문 2004
김현수, 맹사성의 풍수관과 사례지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5.
백남대, 전통취락의 비보풍수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이은동, 전통마을에 관한 풍수지리 분석,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국문초록>

제주 돌문화공원의 입지 및 공간구성에
관한 풍수지리적 분석

고 봉 선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환경설계학과
풍수지리전공

지도교수. 박시익 · 박찬용

요 약

제주의 상징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문화관광자원을 콘텐츠화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세계 최초의 돌 문화공원이 2006년 6월에 제주시 조천읍 교대리에서 탄생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 돌문화공원의 입지와 공간 배치에 대해 우리의 전통지리사상인 풍수지리학을 토대로 분석하여, 돌문화 공원의 입지 및 배치 공간에 따른 운영상의 영향이 있는지를 고찰하고, 풍수지리적 재구성에 대하여 분석을 하는 것이다.

제주 돌문화공원의 입지 분석에는 입지와 시설물의 계량화가 가능한 풍수지리의 경험과학적인 논리체계인 간룡법, 장풍법, 득수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간룡분석을 보면 풍수지리에서 중요시하는 것이 배산임수인데, 태조산으로부터 내룡맥이 연결된 현무봉을 중심으로 배산임수 하지 않은 지금의 돌문화공원 건축물의 입지 및 배치는 명당처의 생기맥을 받지 못하는 형국으로 판단되었다. 장풍분석을 보면 지금의 돌문화공원의 건물입지에서 보면 청룡과 백호가 사신사의 역할을 할 수 없는 형국이다. 그리고 주변의 3개의 오름들이 안산을 하고 있는 국면으로 비추어지나, 이것이 음양의 균형이 이루기 위해서는 명당에 물이 모여 드는 지호수의 수세를 취하여야 한다.

득수분석을 보면 산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상보하지 못하여 명당처의 득수 역할 못하였고, 또한 수관재물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파구의 형태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 생기가 머무를 수가 없다.

본 연구는 풍수지리적 재구성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 돌문화공원의 입지 및 공간구성에 관한 풍수지리적 분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한라산(태조산)--민오름(주산)--큰지오름(현무봉)으로 내룡하여 생기맥을 받는 명당국이 형성되어 경험 과학적인 논리체계인 간룡법의 입지에 부합된다고 판단한다. 차후의 돌문화공원의 건물들이 입지 및 공간 배치시에는

큰지오름을 현무봉으로 배산임수 함으로써, 작은지오름이 청룡국을 이루고 바농오름이 금형체의 안산을 이루는 형국으로 입지를 하여야 명당기운을 받는다. 풍수지리에서 청룡은 관직과 명예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돌문화공원의 위상을 널리 펼치는 명예를 얻고, 서북(건방)에서 불어오는 골바람을 막아주어 명당처의 생기가 흩어지지 않고 머물 수 있도록 장풍 역할을 한다.

금형체(金型體)의 안산(案山)은 오행(五行)의 기운(氣運)에서 부(富)를 상징하는 기로 명당처의 생기를 밝게 반사하고 조용하여 주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사신사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양기풍수에서 제일 중요한 현무봉(큰지오름)을 배산으로 한 건물의 입지 및 배치는 안산(바농오름)을 맞이하여 음양조화를 이루었고, 큰오름의 오른쪽으로 뻗어내린 지맥인 하수사에 의해 전저후고의 명당국면을 이루게 된다. 득수에 있어서는 청룡인 작은지 오름과 안산인 바농오름에서 득수하였다. 큰지오름에서 배면하면 동출서류로 명당처에 임하면서 안산을 사이에 두고 흘러 가는데, 길수인 지호수 명당을 이루어 생기가 모이게 된다. 수관재물인 물을 걷어주는 하수사의 지맥이 현 건물을 멀리서 환포하고 있는 지세로 비보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건물의 지세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풍수지리적 국세는 앞으로의 돌문화공원의 운영에도 생기가 충만해 질것으로 기대되고, 자연과 풍수지리와의 조화와 균형을 이룬 명당국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제주 돌문화공원의 입지와 공간 구성에 대해 우리의 전통지리사상인 풍수지리학을 토대로 분석한 것으로서, 이번 연구 결과가 제주도 문화관광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아가 돌 문화공원을 재구성하여 보다 나은 전통적인 제주문화관광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기를 바라면서 차후에 제주 문화권의 개발을 할때는 전통적인 풍수지리학적 분석이 선행(先行)되기를 기대한다.

M.S. Thesis

**The analysis of Pengshui for Jeju stone park
location and space composition**

Go, Bong-seon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
Public Health studies of Yeoungnam University
Department of Environmental Design
Major in Pengshui**

Supervised by Park, Si-Ik , Park, Chan-Yong

Abstract

Thing which culture sightseeing resources do contents reflecting symbolism of Jeju maximum allows purpose. First stone park was born in Jeju Chocheoneup Kyoraeri on June, 2006 in the world.

Analyze about location and space composition of Jeju stone park and it is purpose of this research to consider whether effect is at operation by location and space arrangement of stone park, and analyzes about

Pengshui reconfiguration. Result that analyze as location analysis of Jeju stone park makes Kanryongbeop of Pengshui , Jangpoongbeop, Deuksubup the center is as following.

If conduct Kanryong analysis, it is Baesanimsu that taking a serious view in Pengshui, location and arrangement of present stone park building which do not Baesanimsu laying stress on Hyunmubong that Naeryongmak is linked from Taejosan are situation that do not receive Saengkimaek of Myungdangcheo.

It is situation that Cheongryong and Baekho can not act role of Sasinsa if see in building location of stone park if conduct Jangpoong analysis. And surrounding 3 O-reums do not Ansan and is looked like that are achieving but are such actually.

If conduct Deuksu analysis, Sangki can not stay form that do shape of Pagu that Sukwanjaemul's energy evades.

Wish to do Pengshui analysis about location and space organization of Jeju stone park presentation as following with result that this research analyzes through Pengshui reconfiguration.

Subsequent stone park's buildings location and Keunji O-reum at space arrangement by doing Hyunmubong Baesanimsu, receive Myungdangkiun though make location shape that Jakeunji O-reum accomplishes Choengryungkuk and Banong O-reum accomplishes Ansan of Geumhyungche. Ansan of Geumhyungche reflects Sangki of forked road Myungdangcheo that symbolizes the wealth in Kiun of O-hang brightly

and is one of important Sasinsa.

Therefore, in Yangki Pengshui the most important Hyunmubong (Keunji O-reum) by Baesan location and arrangement of building Myungdang aspect of Jeonjeohugo by Hasusa that accomplished sun and the moon creation because meet Ansan (Banong O-reum), and are Ppeoteonaerin Jimaek to right of Keun O-reum accomplish.

Did Deuksu in Jakeunji O-reum that is Cheongryong in Deuksu and Banong O-reum that is Ansan Put between and flow Ansan facing to Myungdangcheo by Dongchulseoryu if do Baemyun in Keunji O-reum, Ki is gathered accomplishing Jihosu Myungdang that is Kilsu.

Jimaek of Hasusa that walk water been Sukwanjaemul string building that exert good effect to Jise of building by making role of Bibo Jise that is doing Hwanpo from a distance think.

Think that is Myungdangkuk that such Pengshui Kukse is expected to operation of forward stone park, and accomplishes harmony and balance with nature and Poongsujiri.

Think that may supply data that study finding can utilize for Jejudo culture sight seeing piece.

Expect that traditional Pengshui analysis is preceded at development of Jeju cultural area hereafter wanting to become foundation that develop better traditional Jeju culture sight seeing further more reconstructing stone park.